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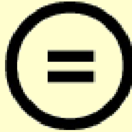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 석사 학위논문

‘커넝’ 및 관련 표현에 대한 연구

2014년 0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金焱

‘커녕’ 및 관련 표현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박 진 호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김 염

김염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월

위 원 장 전영철 (인)

부위원장 황선엽 (인)

위 원 박진호 (인)

<국문초록>

‘커녕’및 관련 표현에 대한 연구

金焱(김염)

본고의 목적은 ‘커녕’ 및 관련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을 자세히 알아 보는 것이다. 한국어의 ‘커녕’ 및 관련 표현을 ‘커녕’, ‘고사하고’, ‘물론’, ‘말할 것도 없고’, ‘하물며’, ‘이 다 뭐야’를 포함하여 살펴 보았고 이들을 형식적인 관용표현으로 보아 논의를 하였다.

기존 사전들에서의 ‘커녕’ 및 관련 표현에 대한 의미를 대부분 어떤 사실은 말할 것도 없이 부정하고 그보다 덜하거나 더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과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도리어의 두 가지 뜻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많이 미흡하다. 본고는 ‘커녕’ 및 관련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에 의하여 ‘커녕’ 및 관련 표현이 다섯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려고 한다. 어떤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부정하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가진 것으로 ‘커녕$_1$ ’, ‘고사하고$_1$ ’, ‘물론이고$_1$ ’, ‘말할 것도 없고$_1$ ’, ‘하물며$_1$ ’, ‘이 다 뭐야$_1$ ’로 표기하고, 어떤 사실은 말할 나위도 없이 부정하고 그보다 더 심한 일을 맞이하는 뜻을 가진 것으로 ‘커녕$_2$ ’, ‘고사하고$_2$ ’, ‘물론이고$_2$ ’으로 표기하고,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도리어의 뜻을 가진 것으로 ‘커녕$_3$ ’, ‘고사하고$_3$ ’, ‘물론이고$_3$ ’, ‘이 다 뭐야$_2$ ’, ‘말할 것도 없고$_2$ ’ 로 표기하고, 어떤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긍정하고 그보다 더한 것까지 긍정하는 뜻을 가지는 것으로 ‘물론$_4$ ’, ‘말할 것도 없고$_3$ ’, ‘하물며$_2$ ’, ‘이 다 뭐야$_3$ ’으로 표기하고, 잠시 미루어 문제 삼지 않음, 우선 내버려둠의 차치물론(且置勿論)의 뜻을 가진 것으로 ‘고사하고$_4$ ’, ‘이 다 뭐야$_4$ ’로 표기한다. 의미지도를 이용하여 ‘커녕’ 및 관련 표현들의 의미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였다.

‘커녕’ 및 관련 표현의 부분적인 특징으로 접속기능, 조각문, 부정극어, 쌍 대조 초점, 척도, 함의가 있다. ‘어떤 사실은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과 ‘어떤 사실은 말할 나위도 없이 긍정하고, 그보다 더한 것까지 긍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접속기능, 함의, 척도, 쌍 대조 초점의 특점에 부합되고, ‘어떤 사실은 부정하는 것

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은 부정극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도리어'의 뜻은 반(反)기대 표지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특징은 '커녕' 및 관련 표현의 부분적인 특징으로 전반적인 특징을 총괄하지 못하였다. 본고는 한국어 '커녕' 및 관련 표현의 특징을 아우르기 위하여 대화를 중심으로 하여 자신의 주관성뿐만 아니라, 청자의 주관성도 고려하여 언어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중시한 '상호주관성'의 개념을 원용하여 논의를 하였다.

키워드: 커녕, 고사하고, 물론, 말할 것도 없고, 하물며, 이 다 뭐야, 접속기능, 조각문, 부정극어, 쌍 대조 초점, 함의, 척도, 반(反)기대 표지, 상호주관성.

학번: 2011-23994

목 차

<한국어 초록> ······ i

1. 서 론 ······ 1

1.1 문제제기 ······ 1

1.2. 관찰 대상 자료 ······ 2

1.3. 논의의 구성 ······ 3

2. '커녕' 및 관련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 4

2.1. '커녕' 표현 ······ 7

2.1.1. '커녕$_1$ '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 8

2.1.2. '커녕$_2$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 12

2.1.3. '커녕$_3$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 13

2.2. '고사하고' 표현 ······ 18

2.2.1. '고사하고$_1$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 18

2.2.2. '고사하고$_2$ '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 20

2.2.3. '고사하고$_3$ '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 22

2.2.4. '고사하고$_4$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 24

2.3. '물론(이고) ' 표현 ······ 25

2.3.1. '물론(이고) $_1$ '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 25

2.3.2. '물론(이고) $_2$ '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 27

2.3.3. '물론(이고) $_3$ '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 29

2.3.4. '물론(이고) $_4$ '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 31

2.4. '말할 것도 없고' 표현 ······ 33

2.4.1. '말할 것도 없고$_1$ '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 33

2.4.2. '말할 것도 없고$_2$ '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 35

2.4.3. '말할 것도 없고$_3$ '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 36

2.5. '하물며' 표현 ······ 37

2.5.1. '하물며$_1$ ' 표현의 문법적 의미적 특성 ······ 38

2.5.2. ‘하물며$_2$ ’ 표현의 문법적 의미적 특성 ······ 39
2.6. ‘이 다 뭐야’ 표현 ······ 40
2.6.1. ‘이 다 뭐야$_1$ ’ 표현의 문법적 의미적 특성 ······ 40
2.6.2. ‘이 다 뭐야$_2$ ’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 41
2.6.3. ‘이 다 뭐야$_3$ ’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 42
2.6.4. ‘이 다 뭐야$_4$ ’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 43
2.7. 의미지도를 이용한 요약 ······ 43

3. ‘커녕’ 및 관련 표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46
3.1. 접속기능 ······ 46
3.2. 조각문 ······ 48
3.3. 쌍 대조 초점 ······ 50
3.4. 부정극어 ······ 51
3.5. 함의 ······ 54
3.6. 척도 ······ 57
3.7. ‘커녕’ 및 관련 표현의 상호주관성 ······ 57
3.7.1. 상호주관성 개념 ······ 57
3.7.2. ‘커녕’ 및 관련 표현의 상호주관성 체현 ······ 61

4. 결 론 ······ 65

<참고문헌> ······ 67

부 록 ······ 71

<中文摘要> ······ 80

1. 서 론

1.1 문제제기

이 연구는 ‘커녕’ 및 관련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고 ‘커녕’ 및 관련 표현의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 다룰 ‘커녕’ 및 관련 표현은 의미적 기준과 통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여섯 가지 표현을 포함하였는데 여기에는 ‘커녕’, ‘고사하고’, ‘물론이고’, ‘말할 것도 없고’, ‘하물며’, ‘이 다 뭐야’ 표현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표현의 일부를 논의한 미시적인 연구에서 더 나아가 거시적인 표현 연구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본고에서는 말뭉치 자료를 통하여 ‘말할 나위도 없고’의 의미를 가진 ‘커녕’ 및 관련 표현을 다섯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려고 한다. 첫째, 어떤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부정하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으로 보았다. 둘째, 어떤 사실은 말할 나위도 없이 부정하고 그보다 더 심한 일을 맞이하는 뜻으로 보았다. 셋째,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도리어의 뜻으로 보았다. 넷째, 어떤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긍정하고 그보다 더한 것까지 긍정하는 뜻으로 보았다. 다섯째, 다음으로 미루어 문제 삼지 않음, 우선 내버려둠의 의미를 가지는 차치물론(且置勿論) 의 뜻으로 보았다.

현대 한국어의 언어 현실이나 문법적·의미적 특성을 놓고 보았을 때, 본고에서는 ‘커녕’ 및 관련 표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기하려고 한다. 어떤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부정하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가진 것으로 ‘커녕$_1$’, ‘고사하고$_1$’, ‘물론이고$_1$’, ‘말할 것도 없고$_1$’, ‘하물며$_1$’, ‘이 다 뭐야$_1$’로 표기하고, 어떤 사실은 말할 나위도 없이 부정하고 그보다 더 심한 일을 맞이하는 뜻을 가진 것으로 ‘커녕$_2$’, ‘고사하고$_2$’, ‘물론이고$_2$’으로 표기하고,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도리어의 뜻을 가진 것으로 ‘커녕$_3$’, ‘고사하고$_3$’, ‘물론이고$_3$’,

‘이 다 뭐$_2$ ’, ‘말할 것도 없고$_2$ ’ 로 표기하고, 어떤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긍정하고 그보다 더한 것까지 긍정하는 뜻을 가지는 것으로 ‘물론$_4$ ’, ‘말할 것도 없고$_3$ ’, ‘하물며$_2$ ’, ‘이 다 뭐야$_3$ ’으로 표기하고, 잠시 미루어 문제 삼지 않음, 우선 내버려둠의 차치물론(且置勿論)의 뜻을 가진 것으로 ‘고사하고$_4$ ’, ‘이 다 뭐야$_4$ ’로 표기하고자 한다.

일찍이 Fillmore et al.(1988)에서는 한국어에 ‘커녕’ 및 관련 표현에 대응되는 영어의 ‘let alone’을 관용표현으로 보았고, 관용표현을 어휘적으로 채워진 실질 관용표현과 어휘적으로 열려 있는 형식 관용표현으로 나누었다. 형식 관용표현과 실질 관용표현의 차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형식 관용어는 실질적 관용표현보다 성분분석 모형에 있어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형식적 관용표현은 규칙적으로 포착되어야 하는 그 자체의 규칙을 가지는 것이 특징적이어서 어떠한 통사규칙의 형식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한국어의 ‘커녕’ 및 관련 표현은 익숙되지 않은 요소들이 익숙하게 배열된 관용 표현으로 볼 수 있고, ‘커녕’ 및 관련 표현 이외의 요소는 다른 요소들로 채워질 수 있으므로 형식 관용표현으로 볼 수 있다.

‘커녕’ 및 관련 표현은 각 내용어에 대하여 폐쇄되지 않고, 개방부류를 가진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커녕’ 및 관련 표현을 위에서 표기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표기를 하였지만, 모두 각자의 도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의미상으로도 굳어진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커녕$_1$ ’은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가지는데 어떤 사실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의 배열에도 일정한 제약을 가진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부터 ‘커녕’ 및 관련 표현을 충분히 형식적인 관용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관찰 대상 자료

이 글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물」

(2011. 12. 수정판)의 현대 구어 전사 원시 말뭉치 4,204,082 어절을 기본적인 관찰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현대 구어 전사 말뭉치에 채록된 대화의 유형이 제한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네이버에서 내려 받은 문서화된 텔레비전 연속극 및 시트콤 극본 6,883회분과 영화 각본 314편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중국어의 말뭉치 자료는 '漢語鏈(http://www.chineselinks.cn/corpus.html) ' 코퍼스를 사용할 것이다.

아래 몇 가지 경우에는 말뭉치 자료가 아닌 예문을 사용할 것이다. 첫째, 우선 선행 연구의 논의에서 사용된 예문을 쓸 수 있을 것이고, 둘째, 사전에 씌어진 예문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셋째, 특수한 문맥을 필요할 경우나 적격하지 않은 문장을 예로 제시할 때 말뭉치 자료를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자가 작성한 예문을 사용하기로 한다.

1.3. 논의의 구성

이하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2장에서는 '커녕' 및 관련 표현의 간단한 대비연구를 진행하여 '커녕' 및 관련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징을 살펴본다. 여기에는 '커녕', '고사하고', '물론', '말할 것도 없고', '하물며', '이 다 뭐야' 의 구체적인 논의가 할애된다.

3장에서는 영어에서 '커녕' 및 관련 표현의 제반 양상을 설명하는 데 필요했던 부정극어, 함의, 두 개의 초점, 접속조사의 기능, 조각문, 척도 이론이 한국어의 '커녕' 및 관련 표현의 제반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의 '커녕' 및 관련 표현을 기술하는 데에 상호주관성 개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4장에서는 논의를 정리하고 마무리 한다.

2. '커녕' 및 관련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커녕' 및 관련 표현에서 '어떤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부정하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은 아래의 몇 가지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1) 가. 나는 폭죽은커녕 폭탄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나. 나는 폭죽은 고사하고 폭탄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다. 나는 폭죽은 물론 폭탄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라. 나는 폭죽은 말할 것도 없고 폭탄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마. 폭죽이 다 뭐야, 나는 폭탄도 무서워하지 않아.
  바. 나는 폭탄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하물며 폭죽이야.

한국어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반면, 영어나 중국어의 표현은 한국어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아래와 같이 상대적으로 단일한 편이다.

(2) 가. 我連炸彈都不怕,更不用說鞭炮了。
  나. I'm not afraid of bombs, let alone firecrackers.

한국어 '커녕' 및 관련 표현이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도리어'의 뜻을 가지는 것으로는 아래의 표현들로 나타낼 수 있다.

(3) 가. 약을 먹었는데 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졌다.
  나. 약을 먹었는데 병이 낫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
  다. 약을 먹었는데 병이 낫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더 심해졌다.
  라. 약을 먹었는데 병이 낫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
  마. 약을 먹었는데 병이 나은 것이 다 뭐야, 오히려 더 심해졌다.

한국어 '커녕' 및 관련 표현이 '어떤 사실은 말할 나위도 없이 부정하고 그보다 더 심한 일을 맞이하다'의 뜻을 가지는 표현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가. 약을 먹었는데 병이 낫기는커녕 더 심해지기까지 하였다.
나. 약을 먹었는데 병이 낫기는 고사하고 더 심해지기까지 하였다.
다. 약을 먹었는데 병이 낫지 않은 것은 물론 더 심해지기까지 하였다.

'이 다 뭐야' 표현도 (4)에서와 같이 '약을 먹었는데 병이 나은 것이 다 뭐야, 더 심해지기까지 하였는데' 로 발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다 뭐야' 를 본고에서 '어떤 사실은 말할 나위도 없이 부정하고 그보다 더 심한 일을 맞이하는' 뜻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은 말뭉치 자료에서는 위의 뜻으로 사용하는 표현을 찾아 볼 수 없었다. 필자의 말뭉치 자료가 부족할 수도 있겠으나, 생각건대 '이 다 뭐야' 표현은 발화를 함에(4)의 예문들보다 발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예문(3)과 예문(4)는 영어에서는 아래의 예문(5)와 같이 하나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5) I took my medicine, but got worse, let alone cured.

영어에서는 위와 같은 하나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고, 중국어는 두 가지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

(6) 가. 吃了藥,病不但沒好,反且更嚴重了。
나. 吃了藥,病不但沒好,而且還更嚴重了。

(6가)는 위의 한국어의 예문(3)에 대응되는 표현이고, (6나)예문은 (4)

에 대응되는 표현이다.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선행절에 부정소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한국어는 영어보다는 부정소가 오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중국어에서는 선행절에서 부정소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6가)는 (6나)보다 뒤의 내용을 더 강조하여 나타내어 '놀라움'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6나)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의 일반적인 서술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놀라움'의 심리 상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커녕' 및 관련 표현에서 '잠시 미루어 문제 삼지 않음, 우선 내버려둠'의 의미를 가지는 표현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가. 재미는 고사하고, 내가 지금 며칠째 뭐에 씌여 있다.
　　나. 재미가 다 뭐야. 내가 지금 며칠째 뭐에 씌여 있다.

(7)의 표현을 영어와 중국어로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8) 樂趣暫且不論, 我現在好几天被什么東西覆盖了。
(9) I'm all-possessed several days, let alone the fun.

한국어에서는 (7)과 같이 세 가지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반면, 영어와 중국어에서는 각기 하나의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그보다 더한 사실까지 인정하는 뜻'을 가진 표현을 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0) 가.He is afraid of firecracker, let alone bombs.
　　나. 他連鞭炮都怕,更不用說炸彈了
　　다. 그는 폭탄을 무서워하는 것은 물론 폭죽도 무서워한다.
　　라. 그는 폭탄을 무서워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폭죽도 무서워한다.
　　마. 그는 폭죽도 무서워한다는데, 하물며 폭탄이야.

바. 폭탄이 다 뭐야, 그는 폭죽도 무서워 한다.

한국어의 '커녕' 및 관련 표현은 영어나 중국어의 표현보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동시에 표지가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한국어의 '커녕' 및 관련 표현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2.1. '커녕' 표현

본고에서는 '커녕' 표현을 다루기 전에, '커녕'의 의미에 대하여서 사전에서는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 《(금성판)국어대사전》, 《우리말큰사전》의 사전적 기술을 종합하여 보면 '커녕'은 크게는 아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다.

커녕(조)

① 체언의 뒤에 붙어 주로, 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문장에 쓰여,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그는 대학교커녕 중학교도 다니지 못했다. /시골에 내려가서 부모님께 큰절커녕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왔다.

②체언의 뒤에 붙어 '그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도리어'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어머니는 그 일에 대해서 야단커녕 칭찬만 하시더라. /철수는 사업에 실패한 뒤로 좌절커녕 다시 도전할 모양이다.

사전의 기술은 전반적으로 '커녕'은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과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도리어' 두 가지 뜻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2.1.1. '커녕$_1$ '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본고는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가지는 '커녕'을 '커녕$_1$ '로 표기한다.[1)]

(11) 가. 현태: 수아씨한테 전화해서 회장님 용태 좀 알아봐줄래요?
아침 문안은커녕 수아씨도 못보고 쫓겨나오는 길이예요 부탁해요 소라씨 ...
핸드폰 끄고 다시 정택수를 클릭해서 전화를 거는 현태 신호만 갈뿐 받지를 않는다. <그린로즈,21>

나. 용국: 넌 유진이 없을 때만 이 몸을 찾아주는구나. 내 존재감이 그 정도밖에 안된다. 이거지?
상혁: (웃으며) 또 왜 그래. 내가 술 사면 되잖아.
용국: 그건 당연한 거고. (시계를 보며) 아니, 그나저나 이 여자가 정말... 병원 문 닫아야하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이런 여자가 무슨 동물을 키운다고... 내가 볼 땐 연애는커녕 짝사랑도 못해본 여자임에 틀림없다. 사랑을 받아봤어야 사랑을 줄줄도 알지. 안 그래?
상혁: 온다고 했으니까 올테지.... 기다려봐. <겨울연가, 4회>

'커녕$_1$ '은 '커녕'의 앞에 항상 '은/는'과 함께 공기하고, '커녕'의 후행어는 '도'와 자주 결합하는데, '도' 대신에 또 '조차(도)'가 결합하기도 한다.

(12) 가. 한씨: 이씨 가문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법도는 안중에도 없는 게야? 가마가 떠나고 혼례가 끝날 때까지 비록 그 어미라 할지라도 떠나는 여식과 얼굴을 마주하거나 말을 섞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된다!

---

1) 위의 사전의 기술에서 《연세한국어사전》을 제외한 사전들에서 '커녕$_1$ '의 뜻을 볼 수 있다.

인홍모: 장모랍시고 사위 한 번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왕래는커녕 딸아이와 서간조차 주고받을 수 없게 된다는데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 보고픈 게 그리 큰 잘못입니까?

한씨: (진노하여)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어찌 이리 무례하고 경박할꼬!<전설의 고향, 1회>

'커녕$_1$ ' 은 A, B의 자리에 명사 또는 명사구가 올 수 있다.

(13) 가. 상원: 근데 저분은 나이가 꽤 되신 거 같던데...

태구: 내후년에 정년이야.

상원: 그래... 근데 교장은커녕 교감도 못 된거야?

태구: 저 나이 먹도록 평교사면 뻔한 거 아니냐... 답답한 양반이지. <강남엄마 따라잡기, 4회>

나. 현태: 수아씨한테 전화해서 회장님 용태 좀 알아봐줄래요?

아침 문안은커녕 수아씨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린로즈, 21회>

(13가) 는 A, B의 자리에 명사가 오는 표현으로 교장이 되지 못했음은 말할 것도 없고, 교감도 되지 못함을 의미하고 (13나) 는 A, B의 자리에 명사구가 오는 표현으로 아침 문안도 못했고, 수아씨도 만나지 못하였다는 뜻을 의미한다.

'커녕$_1$ '은 부정문 종류에 제약이 없다.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 모두 가능하며 단형 부정 및 장형 부정도 가능하다.[2)]

(14) 가. 수미:(코웃음) 우리 딸 다니는 학교는 67명 보냈어, 3년째 전국 1등이구. 우리 아들두 그 학교 나와서 과학고 간거야. 니네 아들, 앞으로 뭐 할건지는 생각해 놨어?

민주: (슬슬 기분 나빠지고 있다) 지 아빠처럼 고시 패스해서 판, 검사 시켜야지.

2) '안, 못, ~지 못하다, ~지 않다, ~없다, ~ㄹ 수 없다.' 가 서술어에 자주 올 수 있다.

수미:(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으며) 아까 너 니네 아들 과학고 보낸다매? 요샌 과학고 나와선 인문계 진학 힘들어.

민주: 뭐?

수미: 너 공부 좀 해야겠다. 아빠의 경제력과 엄마의 정보력이 일류대 보낸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어? 엄마가 그렇게 몰라서는 서울대는커녕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보내~

민주: (기분 안 좋은)

수미: 강남하구 강북하곤 수준 차가 좀 있지.

민주: (발끈) 어디 사는게 뭐가 중요하니, 눈앞에 딱 보이는 등수가 있는데. 전교 1등하구 20등하구 같애? <강남 엄마 따라잡기, 1회>

나. 빈 식당. 혼자 앉아 양파를 까고 있는 신영. 양파를 까 칼로 4등분으로 자르고... 매운 듯 눈물을 찍어내고 있다. 옆엔 다듬어 놓은 배추가 놓여있다.

신영: 근무시간 외의 잔업은 당연시. 손님들의 희롱에도 주인은 모른척. 야참은커녕 저녁 먹을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 14회>

(14가) 는 단형 부정인 '못' 부정문이고 (14나) 는 장형 부정의 '~지 않다' 부정문이다.

또, '커녕$_1$ '은 부정소 대신 형용사 '힘들다, 어렵다'와 같은 단어에 의하여 부정문맥을 이룰 수 있다.

(15) *울리는 전화벨: 사무실 안을 서성이다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김양의 책상위에 있는 수화기를 드는 정변호사*

정변호사: 어, 나야! 뭐 좀 밝혀지나?

조계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 공범여부는커녕 누구의 단독 범행인지 조차도 파악하기 힘듭니다.<그린로즈, 20회>

‘커녕$_1$ ’은 규칙적인 형식을 가진다. 아래에 예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16) 태인: (부들부들) 그래서? 신애는? 신애는 어떡할건데? 그냥 죽일거야?
유진: 그래서 돈 구하고 다니잖아!!!
방학이면 노가다 뛰고, 밤새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냈어.
그치만, 치료비는커녕 입원비도 못 대!
남은 건 하나! 사채든, 내 몸뚱이 팔든!
팔 수 있는 건 다 팔구, 빌릴 수 있는 건 다 빌릴거야!!
태인 ... (손을 치켜든 채, 때리지를 못하는데)

AX: 치료비(<F>)
BX: 입원비(F)
F: 못

‘커녕$_1$ ’ 표현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AX은/는커녕 BX도/조차(도) > F

“<>” 표시는 부정 의미를 나타내는 작용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시하였고 부정소의 작용역은 아니다. F는 부정소이고 부정소가 없이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F>로 표시하려고 한다. X는 A, B에 대응하는 서술어이다.[3]

‘커녕$_1$ ’ 표현은 부정소가 A와 B에 모두 작용을 하여 A를 포함한 사태(AX)보다 B를 포함한 사태(BX)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 BX가 일어나지 못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으니, AX는 더욱이 일어나지 못한다.

3) 이하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1.2. '커녕$_2$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본고에서는 말뭉치 자료를 통하여 기존에 논의되지 않은 '앞의 사실은 말할 나위도 없이 부정하고 뒤의 사실에서는 앞의 사실보다 더 심한 일이 뒤따르는 뜻'을 가지는 '커녕' 을 '커녕$_2$ '로 표기한다. '커녕$_2$ '의 후행어는 긍정의 표현이 뒤따른다.

'커녕'의 후행어에 있어서 '커녕$_1$ '에서는 보조사 '도' 대신에 '조차(도)'가 오면서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었는데, '커녕$_2$ '는 보조사 '도' 대신에 일반적으로 '까지(도), 마저(도)'가 공기하여 긍정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적이다 .

(17) 가. 자연히 집안 식구들과의 <u>대화 기회는커녕 얼굴 보는 기회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u>
나. 집나간 철수는 맨발엔 시커먼 때가 누룽지처럼 엉겨붙어있고, <u>세수는커녕 콧구멍엔 눌눌한 콧물 덩어리까지 딜룽거리고 있었다.</u>
다. <u>그런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검찰과 재판부가 맞장구를 쳐가며 적당히 짜고서 사건을 얼버무리려는 듯한 인상마저 풍겼다.</u>

(17가) 는 '집안 식구들과 대화 기회는 없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얼굴 보는 기회도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17나) 는 '세수를 하지 않은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콧구멍엔 눌눌한 콧물 덩어리까지 딜룽거리고 있었다.'는 뜻을 가지며, (17다) 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검찰과 재판부가 맞장구를 쳐가며 정당히 짜고서 얼버무리려는 듯한 인상을 얻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아래의 예문을 분석함으로 '커녕$_2$ '는 어떠한 형식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18) 충남 태안군내 대부분의 항포구가 국립공원내 자연환경지구로 묶여

10년이 넘도록 어항개발은커녕 시설투자마저 규제받고 있어 어민들의 생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X: 어항개발을 하지 못하다.(<F>)
BX: 시설투자마저 규제 받는다.

'커녕$_2$ ' 표현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AX은/는녕> B도/까지(도) /마저(도) BX

'커녕$_2$ ' 표현은 A를 포함한 사태(AX)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이 부정하고 그보다 더 심한 BX가 뒤따른다.

2.1.3. '커녕$_3$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도리어'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커녕$_3$ '을 설정한다. '커녕$_3$ '은 서술어에 부정어가 나타나지 않고 문맥상 '앞 문장과 상반되거나 뜻밖임' 의 의미를 가져, 기대했던 상황에서 전환하여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맞이한다. [4]

(19) 가. 카메라, 창밖에서 두 사람 잡으면, 봄바람이 슬쩍 불어, 두 모녀의 머리카락을 날린다.
성우: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봄바람 좋다.... 맘이 싱숭생숭하네... 엄마도 그렇지....
영희: 아니. 난 싱숭생숭은커녕 찝찝하다. (차마시고) <거짓말,4회>
나. 준희: (앞만 보고, 차몰며) 앞으로란 노래 알죠?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지, 그런

4) 《(금성판)국어대사전》을 제외한 사전들에서 '커녕$_3$ '의 뜻을 볼 수 있다.

노래?

성우: 응.

준희: 어려서 그 노랠 무척 좋아했어요. 가사 내용 전불 믿었죠. 하루는 그래서 집을 나갔어요. 온 세상 애들을 다 만날려고.

성우:(웃음 띤) 어떻게 됐어.

준희: 걷구 걷구 또 걸엇죠. 그러다, 애들을 만나기는커녕 집만 잊어버렸어요.

성우:(크게 웃고) <거짓말 2회>

(19가) 는 '맘이 싱숭생숭하지는 않고 오히려 찝찝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9나) 는 '애들을 만나지 못하였고 오히려 집만 잊어 버렸다.' 는 의미를 가져 기대했던 바와 반대임을 나타낼 수 있다.

'커녕$_3$ '에서 동사구는 때로는 명사구로 축소되어 나타날 수 있다.

(20) 갑: 너 상 받을 거라면서? 상은 받았어?

을: 상은커녕 오히려 벌을 받았다.

예문(20) 은 동사구가 명사구로 축소되어 나타난 예문이다. 그러나, '커녕$_3$ '에서 모든 동사구가 명사구로 축소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1) 가. 갑: 어머니가 미국에 가니 철수가 슬퍼했어?

을: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좋아라하더라.

갑: 요즘 철수가 키가 큰 것 같지 않아?

을: 키가 크기는거녕 오히려 줄었어.

나. 갑: 내가 미국에 가니 철수가 슬퍼했어?

을: ?슬픔은커녕 오히려 좋아라하더라.

갑: 요즘 철수가 키가 큰 것 같지 않아?

을: ?큼은커녕 오히려 줄었어.

'커녕$_3$ ' 에서 동사구가 명사구로 축소될 수 있는 예문은 동사구의 동사가 타동사로서, 그 타동사가 생략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22) 가. 히딩크 감독의 표현은 과장은커녕 오히려 줄여 말한 셈이다.
나. 이들에게 혜택은커녕 오히려 부담을 늘리도록 처방하라는 건 복지제도 자체의 의미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다. 홈그라운드의 이점은커녕 오히려 원정경기의 불리함을 안아야 했다.

(22가) 는 타동사 '하다' 가 줄어든 것이고, (22나) 는 타동사 '주다'가 생략된 것이고, (22다) 는 타동사 '안다'가 줄어든 것이다.
'커녕$_3$ '의 뒤에는 '오히려/도리어' 가 자주 공기 되고, '오히려/도리어' 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생략되어 나타날 수 있다.

(23) 가. 양검사: 민영재...그가 누굽니까...아내를 잃고...갓 태어난 어린 딸을 두고...이 나라를 위해 한 평생을 살다간 분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그분께 빚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그것도 일본군인을 사주 해 친구의 목숨을 뺏고, 어린 자식에게 아버지를 빼앗은 피고의 죄는 도저히 용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고는 그런 반인륜적인 죄를 저지르고도 참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죄를 덮고자 무고를 일삼았습니다. 검찰에서는 우리 시대의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피고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국회,20회>
나. 중추적 기관투자가인 투신사의 자금이 지난해 대우문제가 불거

진 후 약 1백조원이 감소하면서, 투신사가 증시를 안정시키기는 커녕 도리어 주가하락을 주도하는 격이 돼버린 것이다.

다. 난희: (부들부들하다가 벌떡 일어난다) .... (참자참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일어나서 가는 난희, 여전히 낙서 끄적이는 주영을 본다. 넘어지는 척 하고 주영 위에 쓰러지는 난희. 볼펜이 난희의 기대와 달리 주영의 콧구멍은커녕 난희 볼따구를 찌른다. <9회말 아웃2 4회>

(23가) 는 '오히려'가 쓰인 문장이고, (23나) 는 '도리어'가 쓰인 문장이고, (23다) 는 '오히려/도리어'가 생략되어 아무런 표지가 없지만, 의미적으로 '커녕$_3$ '의 뜻을 가진 표현이다. '커녕$_3$ '은 反기대(counter-expectation)을 나타낸다. (23가) 는 '죄를 많이 저지렀으니 참회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지만,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로 죄를 덮고자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23나) 는 '투신사가 증시를 안정시킬 것을 기대하였는데 증시를 안정시키지 않음은 말할 나위도 없고, 완전히 기대와 반대되게 주가하락을 주도하는 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며 (23다) 는 '난희가 볼펜으로 주영의 콧구멍을 찌르려고 하였지만, 난희의 기대와 반대되게 볼펜이 주영의 콧구멍이 아닌 자신의 볼따구를 찔렀다'는 의미를 가진다.

'커녕$_3$ '의 후행어에 보조사 '만'과 자주 공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24) 가. 나는 잔디밭에서 자전거를 타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씁쓸하기는커녕, 전직 어느 대통령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오히려 흐뭇하기만 했다.

나. 금자, 양파 반쪽 손에 쥐고 비장하게 걸어 들어오다 멈춤.
한 번 눈에 문질러보고 우는 연습
금자:(재채기)에취~~ 눈물은커녕 재채기만 나네.. (콧물 쓱 훔치는데)<그대 웃어요,2회>

(24가) 는 '커녕'의 후행어에 '오히려' 가 나타나면서 '만'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24나) 는 '커녕'의 후행어에 보조사 '만'만 나타나다.

아래의 예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커녕$_3$ '는 어떠한 형식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 보기로 한다.

(25) 가. 동진: (남자 들어가는 거 보고, 고개 돌려 세미 본다.)

세미: (떨떠름한) 왜, 그렇게 말해요?

동진: 뭘?

세미: 그냥, 아는 애라고 말하지. 아저씨 챙피하잖아요.

동진: (세미맘 알겠다, 미소 띠고) 니가 왜 챙피해, 이쁜데, 챙피하긴커녕 자랑스럽다, 임마.

세미: 정말요?

동진: (고개 끄덕인다)

나. 연 희 : (웃으며) 니 말 듣고 나니까, 조금 그런 것도 같은데..나랑 헤어진 덕분에 너 준영이 만났잖아. 그럼 고마워, 해야지, 아냐?

지 오 : 고맙긴커녕 상처만 가득하다, 임마. (하고, 창을 내리고, 바람맞으며,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한쪽에 커튼이 쳐진 것 같은, 지오, 눈을 부비고, 다시 하늘을 보는, 눈이 왜 이런가 싶다. <그들의 사는 세상, 13집>

(25가) 챙피하긴커녕 자랑스럽다,

AX: 챙피하다 (<F>)

BX: 자랑스럽다

(25나) 고맙긴커녕 상처만 가득하다,

AX: 고맙다.(<F>)

BX: 상처만 가득하다.

‘커녕$_3$ ’ 표현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형식1: <AX은/는커녕> (오히려/도리어) BX
형식2: <AX은/는커녕> (오히려/도리어) B만 X

‘커녕$_3$ ’ 표현은 기대했던 A를 포함했던 사태(AX) 가 일어나지 못하였고 생각지도 못한 B를 포함한 사태 (BX) 가 일어난다.

2.2. ‘고사하고’ 표현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 《(금성판)국어대사전》,《우리말큰사전》의 사전적 기술을 종합하여 보면 ‘고사하고’는 크게는 아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다.

《주로 ‘…은’, ‘-기는’ 뒤에 쓰여》 말할 것도 없고, 물론이고, 커녕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었다.
¶거리엔 사람은 고사하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다./점심은 고사하고 물 한 모금 못 마셨다. /편히 다리를 펴기는 고사하고 고쳐 앉을 여유도 없을 만큼 대합실은 걸상이나 땅바닥이나 할 것 없이 사람으로 꽉차 있었다.
사전의 기술을 보았을 때, ‘고사하고’의 뜻을 ‘말할 것도 없고’, ‘물론이고’, ‘커녕’의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본고의 논의와는 상의하다.

2.2.1. ‘고사하고$_1$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본고는 ‘어떤 사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이 부정하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가지는 ‘고사하고’를 ‘고사하고$_1$ ’로 표기하려고 한다.

(26) 가. 국희/좀 도와주세요. 저희 꼭 샌드기계 만들어야 되요. 전...지금까지 빵이랑 과자 만드는 일 밖에 해본일이 없어요. 기계에 대해서 .제가 준형씨만큼...아니 그거 반만 알아도 벌써 샌딩기계 만들었을 겁니다.

준형/...

국희/지금까지 잘 사는 집 애들은 외국과자 먹고...못 사는 애들은 과자는 고사하고 그나마 간식이라고는 구경도 못하고 있어요. 그 애들한테...우리가 과자 만들어 먹이는거. 장사도 장사지만, 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준형씨도 저희와 함께 하지 않으실래요?

준형/사실은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국희/예? <국희, 13회>

나. 수도권에서는 자기공장은 고사하고 임대공장마저 구하지 못해 중소기업들이 고통스럽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산업화된 국가들 또한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계속하여 성장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이산화탄소와 그 밖의 물질의 방출량을 줄이는 것은 고사하고 그 증가를 더디게 할 전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사하고$_1$ '의 후행어에 '도' 대신에 '조차(도) , 마저(도) '가 올 수 있다. '고사하고$_1$ ' 표현의 형식을 위의 표현에 대한 아래의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26가) 못 사는 애들은 과자는 고사하고 그나마 간식이라고는 구경도 못하고 있어요.

A: 과자(<F>)

B: 간식(F)

X:구경하다
F: 못

(26나) 수도권에서는 자기공장은 고사하고 임대공장마저 구하지 못해 중소기업들이 고통스럽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X: 자기공장을 구하다(<F>)
BX: 임대공장마저 구하지 못하다.(F)
F: 못

(26다) 이산화탄소와 그 밖의 물질의 방출량을 줄이는 것은 고사하고 그 증가를 더디게 할 전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AX: 이산화탄소와 그 밖의 물질의 방출량을 줄이는 것(<F>)
BX: 그 증가를 더디게 할 전망이 거의 없다.(F)
F: 없다.

‘고사하고$_1$ ’ 표현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AX은/는 고사하고 BX도/조차(도) /마저(도) > F

‘고사하고$_1$ ’ 표현은 부정소가 A와 B에 모두 작용을 하여 A를 포함한 사태(AX)보다 B를 포함한 사태(BX)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 BX가 일어나지 못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으니, AX는 더욱이 일어나지 못한다.

2.2.2. ‘고사하고$_2$ ’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본고에서는 기존 사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어떤 사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이 부정하고, 그보다 더 심한 일이 뒤따른다’는 뜻을 가지는 고사

하고를 '고사하고$_2$ ' 로 설정한다.

(27) 가. "너같은 놈을 동생으로 둔 게 정말 부끄럽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니놈은 신성한 노동은 고사하고 맨날 돈이나 축내면서 연애질이나 일삼더니 급기야 봉희년까지 건드렸구나. 도대체 어떤 사이길래 이 판국에 그애가 불쑥 터져나오냐? 그 잘나빠진 당골네 딸하고 백년해로라도 약속했단 말이냐?"

나. 세수를 며칠 한 번이나 하는지도 모르게 늘상 땟국물이 추저분하게 흐르는 얼굴, 또 고양이 발톱같이 징그럽게도 길다란 열 손톱, 그 사이사이에 새까맣게 박혀있는 묵은 때를 날마다 구경하며 지내온 이웃 사람들로서는 옥님이 이모가 주물럭거려 가며 만들었을 그 떡에 입은 고사하고 손가락을 가져다대는 것마저 꺼림칙했기 때문이었다.

다."이 여편네야, 흘러가는 세월에 서방님 괭이자루 시원찮아지는 것만 알지, 자네 묵은 밭에 돌 자갈 늘어나는 줄은 몰라? 정신 차려. 안 그러다가는 곡괭이질은 고사하고 이빨 빠진 호미질조차도 감지덕지해야 헐 날이 코앞에 금방 닥칠 것인께 말여."

위의 예문은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27가) 니놈은 신성한 노동은 고사하고 맨날 돈이나 축내면서 연애질이나 일삼더니 급기야 봉희년까지 건드렸구나.

AX: 신성한 노동(하다).(<F>)

BX: 맨날 돈이나 축내면서 연애질이나 일삼더니 급기야 봉희년까지 건드리다.

표지: 까지

(27나) 입은 고사하고 손가락을 가져다대는 것마저 꺼림칙했기 때문이었다.

AX: 입을 가져다 대다. (<F>)
BX: 손가락을 가져다대는 것마저 꺼림칙하다.
표지: 마저

(27다) 곡괭이질은 고사하고 이빨 빠진 호미질조차도 감지덕지해야 헐 날이 코앞에 금방 닥칠 것인께 말여.

A: 곡괭이질하다. (<F>)
B: 이빨 빠진 호미질하다.
X:감지덕지 하다.
표지: 조차도

'고사하고$_2$' 표현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AX은/는 고사하고> B도/까지(도) /마저(도) /조차(도) X

'고사하고$_2$' 표현은 A를 포함한 사태(AX)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이 부정하고, 그보다 더 심한 BX가 뒤따른다. BX가 일어나면 AX는 더욱 쉽게 일어난다.

2.2.3. '고사하고$_3$'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본고는 '말할 나위도 없고 도리어'의 뜻을 나타내는 고사하고를 '고사하고$_3$'으로 설정한다. '고사하고$_3$'은 서술어에 부정어가 나타나지 않고 문맥상 '앞 문장과 상반되거나 뜻밖임'의 의미를 가져, 기대했던 상황에서 전환하여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맞이한다. 일반적으로 '오히려/도리

어' 또는 보조사 '만'이 자주 출현할 수 있다.

(28) 가. 제 1부에서 이미 충분히 암시된 작가의 니힐 관념은 제 3부에서는 더 명료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특히 주인공의 위치에서 차츰 멀어진 서희의 편모와 김환의 죽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서희는 조준구에게 남은 마지막 재산, 즉 서희 자신의 평사리 집을 사들이고 난 다음 승리감이나 쾌감은 고사하고, 오히려 허탈감을 느낀다.

나. 『괘씸한 놈이로다. 과부가 실절을 했으면 마땅히 문제를 일으켜 징계를 해야할 일이 아니겠는가? 헌데 징계는 고사하고 도리어 감싸고 돌면서 뒷구멍으로 은근히 비호를 하다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로다.』

다. 즉, 1~2년간의 수업기간이 수강생들 스스로가 갖고 있는 환상과 학원의 상술이 맞물려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심지어 몇몇 수강생들은 4~5년 넘게 캐스팅은 고사하고 엑스트라 비슷한 방청객 생활만 했다며 불만이 많다.

(28가) 는 '승리감이나 쾌감을 느낄 것을 기대하였는데 승리감이나 쾌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허탈감을 느끼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28나) 는 '징계를 하리라고 기대를 하였는데 징계는 하지 않고 도리어 감싸고 돌면서 뒷구멍으로 은근히 비호를 한다.'는 의미이고, (28다) 는 '수강생들은 4-5년 사이에 캐스팅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였는데 4-5년이 넘었지만 캐스팅을 못하였고 오히려 엑스트라 비슷한 방청객 생활만 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위의 예문은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28가) 승리감이나 쾌감은 고사하고, 오히려 허탈감을 느낀다.

A: 승리감이나 쾌감.(<F>)

B: 허탈감.
X: 느끼다.
표지: 오히려

(28나) 징계는 고사하고 도리어 감싸고 돌면서 뒷구멍으로 은근히 비호를 하다니!

AX: 징계 (하다).(<F>)
BX: 감싸고 돌면서 뒷구멍으로 은근히 비호를 하다.
표지: 도리어

(28다) 4~5년 넘게 캐스팅은 고사하고 엑스트라 비슷한 방청객 생활만 했다며 불만이 많다.

AX: 캐스팅 (하다).(<F>)
BX: 에스트라 비슷한 방청객 생활만 하다.
표지: 만

'고사하고$_2$ ' 표현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형식1: <AX은/는 고사하고> (오히려/도리어) BX
형식2: <AX은/는 고사하고> (오히려/도리어) B만 X

'고사하고$_2$ ' 표현은 기대했던 A를 포함했던 사태(AX) 가 일어나지 못하였고 생각지도 못한 B를 포함한 사태 (BX) 가 일어난다.

2.2.4. '고사하고$_4$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본고는 차치물론(且置勿論) 의 의미 '다음으로 미루어 문제 삼지 않음,

우선 내버려둠' 으로 사용되는 고사하고를 '고사하고$_4$ ' 로 표기한다. '고사하고$_4$ '는 일반적으로 '고사하고라도'로 표현된다.

(29) 가. 몇 푼 안 되는 퇴직금은 고사하고라도 몇 달째 밀린 봉급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싶다.

나. 비록 자화자찬(自畵自讚)의 혐(嫌)이 없지 않다 할지라도 스스로 범한 과오와 실패를 엄폐(掩蔽)하려 하지 않고 자부와 함께 자책도 밝히는 태도는 그 시정(是正)의 착수여부는 고사하고라도 건국이래 십여년간을 위정자들의 독선과 호어(豪語)와 음모와 기휘(忌諱)로 일관된 어처구니없는 꼴을 보아 온 백성들로서는 우선 호감이 갔던 게 사실이다.

(29가)는 '퇴직금은 일단 차치물론하고 몇 달째 밀린 봉급마저도 받기 어려운 심리상태'를 나타내고 (29나)는 '과오와 실패를 밝히는 태도의 착수 여부는 차치물론하고 갖은 꼴을 보아 온 백성들로서는 호감이 간 것은 사실임'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2.3. '물론(이고) ' 표현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 《(금성판)국어대사전》, 《우리말큰사전》 에서의 '물론'의 풀이로는 아주 소략하게 '말할 것도 없음'의 의미로 풀이하고 있는데 본고에서 더 구체적으로 풀이를 한다.

2.3.1. '물론(이고) $_1$ '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본고는 '어떤 사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이 부정하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가지는 '물론(이고) '를 '물론(이고) $_1$ '로 설정한다.

(30) 가. 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산업기술정보가 해외의 것은 물론이고, 국내의 것마저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나마 수집된 정보조차도 제대로 데이터 베이스형태를 갖추지 않아 기업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나. 신문사는 물론,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에도 채용보증금을 받는 곳은 없다.

다.전세값이 올라 2천 6백만원으로는 서울시내는 물론 같은 단지 안에 있는 큰 평수아파트의 전세값도 안된다.

위의 예문을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30가) 해외의 것은 물론이고, 국내의 것마저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X: 해외의 것이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않았다.(<F>)
BX: 국내의 것마저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
F: 않는다.

(30나) 신문사는 물론,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에도 채용보증금을 받는 곳은 없다.

AX: 신문사에서 채용보증금을 받는 법이 없다.(<F>)
BX: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에도 채용보증금을 받는 곳은 없다.(F)
F: 없다.

'물론(이고)$_{1}$' 표현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AX은/는 물론(이고) BX도/조차(도) /마저(도) > F

'물론(이고) $_1$ ' 표현은 부정소가 A와 B에 모두 작용을 하여 A를 포함한 사태(AX)보다 B를 포함한 사태(BX)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 BX가 일어나지 못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으니, AX는 더욱이 일어나지 못한다.

2.3.2. '물론(이고) $_2$ '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본고는 '어떤 사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이 부정하고, 그보다 더 심한 일이 뒤따른다'는 뜻을 가지는 '물론(이고) '를 '물론(이고) $_2$ '로 표기한다.

(31) 가. 케네디암살당시의 정황에 대해 정부가 보관중인 문서를 일제히 공개한 것은 지난 8월의 일이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공개문서조차도 상당부분은 삭제됐거나 다소은폐하려는 흔적까지 엿보여 뉴스위크지와 워싱턴포스트지, 그리고 CBS등 유력매체가 암살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공동조사에 착수할 것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나. 그런 만큼 몇해전부터는 그 존폐여부에 대한 논란이 학내외에서 제법 큰목소리로 대두되어 왔다. '학생부부'라는 말이 낯설지 않음은 물론이고 대학캠퍼스에서 버젓이 결혼식을 치르는 풍속도 흔해진오늘날, 과연 이 학칙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다. 신 교수는 길게는 3 개월, 짧게는 한 달 안쪽의 시한부 인생을 통고받았다고 했고, 온사방에서 별의별 민간처방과 자가치료법들이 다 몰려오는데 병자는 그것을 단호히 물리치고 있다는 것이었고, 딸 하나와 아들 하나에게 어떤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로 병원에서 임종하겠다면서 자식들이 병문안을 오지 못하게 함은 물론이고 장례 때도 병원과 장지에 얼쩡거리지 말도록

부인에게 신신당부해두고 있다고 했다.

예문 (31) 에서도 '물론(이고) '의 선행절에는 부정소가 반드시 나타난다. '어떤 사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이 부정하고, 그보다 더 심한 일이 뒤따른다'는 뜻으로 선행절에 부정 표현이 올 수 있다. 위의 표현을 아래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31가) 그럼에도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공개문서조차도 상당부분은 삭제됐거나 다소은폐하려는 흔적까지 엿보여 뉴스위크지와 워싱턴포스트지, 그리고 CBS등 유력매체가 암살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공동조사에 착수할 것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AX: 그럼에도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F)
BX: 공개문서조차도 상당부분은 삭제됐거나 다소은폐하려는 흔적까지 엿보여 뉴스위크지와 워싱턴포스트지, 그리고 CBS등 유력매체가 암살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공동조사에 착수할 것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표지: 조차도, 까지

(31나) '학생부부'라는 말이 낯설지 않음은 물론이고 대학캠퍼스에서 버젓이 결혼식을 치르는 풍속도 흔해진 오늘날,

AX: '학생부부'라는 말이 낯설지 않는다.(F)
BX: 대학캠퍼스에서 버젓이 결혼식을 치르는 풍속도 흔해진 오늘날
표지: 도

(31다) 딸 하나와 아들 하나에게 어떤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로 병원에서 임종하겠다면서 자식들이 병문안을 오지 못하게 함은 물론이고

장례 때도 병원과 장지에 얼쩡거리지 말도록 부인에게 신신당부해두고 있다고 했다.

AX: 어떤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로 병원에서 임종하겠다면서 자식들이 병문안을 오지 못하게 하다.(F)
BX: 장례 때도 병원과 장지에 얼쩡거리지 말도록 부인에게 신신당부해두고 있다고 했다.
표지: 도

'물론(이고) ₂ ' 표현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AX은/는 F 물론(이고) > B도/까지(도) /마저(도) /조차(도) X

'물론(이고) ₂ ' 표현은 A를 포함한 사태(AX)를 부정함은 물론(이고) , 그보다 더 심한 BY가 뒤따른다.

2.3.3. '물론(이고) ₃ '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본고는 '말할 나위도 없고 도리어'의 뜻을 나타내는 '물론(이고) '를 '물론(이고) ₃ '으로 표기한다.

(32) 가. 그 세계의 누구도 원숭이의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에 나타나는 인간의 환멸을 용납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인식의 확장으로 받아들인다.
나. K는 문득 자신이 그 젊은 운전사를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용서해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운전사가 직접 찾아와 단단히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때까지 일을 몰아가는 것이 옳았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쉽게 용서해 버리면 사람들은 절대 반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도리어 자신을 용서해 준 사람

을 바보 취급하기가 십상인 것이다.

다. 세계 역사상 미국과 일본만큼 친화 무드가 감도는 점령국과 피점령국의 관계는 없었을 것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속담은 아마도 일본만의 처세훈이 아닐까. 패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궁색스러운 패자의 자리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민족성이기 때문이다.

위의 예문을 보면, '물론$_3$ '은 일반적으로 선행절에서 부정소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특징적이다. 위의 예문을 분석해기로 한다.

(32가) 원숭이의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에 나타나는 인간의 환멸을 용납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인식의 확장으로 받아들인다.

AX: 원숭이의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에 나타나는 인간의 환멸을 용납하지 않음.(F)

BX: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인식의 확장으로 받아들인다.

표지: 오히려

(32나) 너무 쉽게 용서해 버리면 사람들은 절대 반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도리어 자신을 용서해 준 사람을 바보 취급하기가 십상인 것이다.

AX: 너무 쉽게 용서해 버리면 사람들은 절대 반성하지 않는다.(F)

BX: 자신을 용서해 준 사람을 바보 취급하기가 십상이다.

표지: 오히려

(32다) 패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궁색스러운 패자의 자리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민족성이기 때문이다.

AX: 패해도 망하지 않는다.(F)

BY: 궁색스러운 패자의 자리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민족성이기 때문이다.

표지: 오히려

'물론$_3$ ' 표현은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AX은/는 물론(이고) > (오히려/도리어) BX

'물론$_3$ ' 표현은 기대했던 A를 포함했던 사태(AX) 가 일어나지 못하였고 생각지도 못한 B를 포함한 사태 (BX) 가 일어난다.

'물론(이고) $_3$ '의 선행절에서 일반적으로 부정소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특징이다.

(33) 학문을 해서 아무 수입도 얻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박해를 받기까지 하면서 일생을 바쳐 커다란 업적을 이룩한 동서고금 민간학자들의 고결한 정신을 잊고, 연구비가 적다고 게으름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33)의 '아무'는 부정소를 요구하는데, '커녕$_2$ '와 '고사하고$_2$ '는 선행절에서 부정소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아무'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말할 나위도 없고 도리어'의 뜻을 가지면서 선행절에 부정극어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오직 '물론$_3$ ' 뿐이다.

2.3.4. '물론(이고) $_4$ '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본고는 '어떤 사실은 인정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그보다 더한 사실까지 인정하는 뜻'을 가진 '물론'을 '물론$_4$ '로 표기한다.

(34) 가. 강석: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뿌리치진 못한다는 거겠죠.
천갑: (테이블 탁 두드리며) 그거야. 우선은 급한 불 끄자고 끌어다 쓴 일수가 결국엔 그 집은 물론이고 그 일가까지 몽창 태워버린다는 걸 인간들은 몰라. 그 불에 결국은 지가 타 죽는다는 걸 몰라. 아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 그게 인간이야. 그런 인간들 때문에 오늘에 네 에비가 있는 거다.
강석: (차갑게 미소 지으며) 저는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구요.
나. 재인: 그 여자는 물론이고 그 여자 사돈의 팔촌까지 다 뒤졌어요. 사놓은 땅은 좀 있지만 집한칸 지을 자리도 안되요. 그것도 시골 구석자리에. 작은아버진가 하는 사람이 사법부 쪽에 있긴 하지만 정치권 하구 다른 연결은 없는게 확실합니다.

위의 예문을 아래와 같이 분석 할 수 있다.

(34가) 그 집은 물론이고 그 일가까지 몽창 태워버린다는 걸 인간들은 몰라.

AX: 그 집도 태워버릴 것이다.
BX: 그 일가까지 태워버릴 것이다.
표지: 까지

(34나) 그 여자는 물론이고 그 여자 사돈의 팔촌까지 다 뒤졌어요.

AX: 그 여자는 뒤졌다..
BX: 그 여자의 사돈의 팔촌까지 뒤졌다.
표지: 까지

'물론(이고) $_4$ ' 은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AX은/는 물론(이고) B도/까지(도) /마저(도) /조차 X

'물론이고$_4$ ' 표현은 A를 포함한 사태(AX)를 긍정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그보다 더한 B를 포함한 사태(BX)도 긍정한다. BX가 일어났으니 AX는 더욱 쉽게 일어난다.

2.4. '말할 것도 없고' 표현

'말할 것도 없고'는 《연세한국어사전》에서만 풀이 하였는데, 내용은 '물론이다. 구태여 말을 하지 않아도 명백하다.'의 뜻으로 본다. 하지만, '말할 것도 없고'는 위에서 살펴본 '물론(이고)'의 용법과 많이 다르다 .

2.4.1. '말할 것도 없고$_1$ '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본고는 '어떤 사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이 부정하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가지는 '말할 것도 없고'를 '말할 것도 없고$_1$ '로 표기한다.

(35) 가. 유교의 정해진 격식에 따라 가정에서 꼬박 꼬박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민족은 거의 우리 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유교식 제사 의례는 원래 중국에서 시작되고 발전되어 온 것이었으나, 그것이 온전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종묘대향(宗廟大享)이나 춘추석전(春秋釋奠)과 같은 거창한 제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가정의 제사도 오늘날 중국에서는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다.

나. 경화 : 저는 완전 낙제에요. 빵점짜리 엄마야.
중호 : ...
경화 : 행사 때 학교 한번 찾아가 보지 못했어요. 소풍은 말할

것도 없고... 외식 한번 하기도 하늘에 별 따기죠.

중호 : 저도 마찬가지에요. 일년에 절반씩 출장이다 뭐다 밖으로 도니까 이젠 아들 녀석이 내가 집에 와 있으면 신기해해요. 어쩔 땐 장난친답시고 어서 오십쇼, 아저씨 그런다니까요.

(35) 은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35가) 종묘대향(宗廟大享)이나 춘추석전(春秋釋奠)과 같은 거창한 제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가정의 제사도 오늘날 중국에서는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다.

AX: 종묘대향(宗廟大享)이나 춘추석전(春秋釋奠)과 같은 거창한 제사(F)

BX: 일반 가정의 제사도 오늘날 중국에서는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다. (F)

F: 않다.

(35나) 소풍은 말할 것도 없고... 외식 한번 하기도 하늘에 별 따기죠.

AX:소풍

BX: 외식 한번 하기

F: 하늘에 별 따기 (힘들다/ 어렵다)

'말할 것도 없고$_1$ ' 은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AX은/는 말할 것도 없고 BX도/조차(도) /마저(도) > F

'말할 것도 없고$_1$ ' 은 부정소가 A와 B에 모두 작용을 하여 A를 포함한 사태(AX)보다 B를 포함한 사태(BX)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 BX가

일어나지 못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으니, AX는 더욱이 일어나지 못한다.

2.4.2. '말할 것도 없고$_2$ '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본고는 '말할 나위도 없고 도리어'의 뜻을 나타내는 '물론(이고) '를 '물론(이고) $_2$ '로 표기한다.

(36) 중원: (보는) ....
서전무: 신현태는 리더의 자격은 말할 것도 없고 SR에 해만 끼칠 위인이었네 ... (중원을 보면서) 그래서 난 아가씨가 이정현이와 맺어지길 진심으로 원했었네
중원: (보는) ...

(36)은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AX: 리더의 자격 (F)
BX: SR에 해만 끼칠 위인이었네.
표지: 만

'말할 것도 없고$_2$ '는 반기대의 뜻을 가지고 있다. '리더의 자격을 기대하였지만,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로 SR에 해만 끼치는 사람이다.'는 의미를 가진다.

'말할 것도 없고$_2$ ' 표현은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AX은/는 F 말할 것도 없고> BX

'말할 것도 없고$_2$ '은 기대했던 A를 포함했던 사태(AX)가 일어나지 못하였고 생각지도 못한 B를 포함한 사태 (BX)가 일어난다.

2.4.3. '말할 것도 없고$_3$ '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본고는 '어떤 사실은 인정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그보다 더한 사실까지 인정하는 뜻'을 가진 '말할 것도 없고'를 '말할 것도 없고$_3$ '으로 표기한다.

(37) 가. 우리는 질병에 걸렸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건강할 때조차도 의사들의 의학적 조언을 그대로 실행하는 수동적 존재가 되었다.

나. 위 강들은 특히 조선시대와 근대 교통로(큰 도로와 철도) 등장 전에는 각종 용수 공급 외에도 국토의 교통 동맥 구실을 대단히 훌륭하게 해 냈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상징으로까지 여겨졌었다. 일부는 지금도 그러하다. 한강, 대동강, 용흥강, 금강, 그리고 낙동강은 말할 것도 없고 압록강, 두만강, 예성강, 임진강, 영산강, 섬진강 등도 그러하였던 것이다.

(37) 예문을 아래와 같이 분석한다.

(37가) 질병에 걸렸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건강할 때조차도 의사들의 의학적 조언을 그대로 실행하는 수동적 존재가 되었다.

AX: 질병에 걸렸을 때.
BX: 건강할 때조차도 의사들의 의학적 조언을 그대로 실행하는 수동적 존재가 되었다.
표지: 조차도

(37나) 한강, 대동강, 용흥강, 금강, 그리고 낙동강은 말할 것도 없고 압록강, 두만강, 예성강, 임진강, 영산강, 섬진강 등도 그러하였던 것이다.

AX: 한강, 대동강, 용흥강, 금강, 그리고 낙동강
BX: 압록강, 두만강, 예성강, 임진강, 영산강, 섬진강
표지: 도

'조차'는 '커녕' 및 관련 표현에서 일반적으로 부정을 나타내는 문장에 많이 나타났고, 긍정을 나타낼 때에는 '까지'가 나타나는 빈도가 높았는데 '말할 것도 없고$_1$ '에서는 '조차(도) '가 쓰이는 것을 보면 '말할 것도 없다' 자체가 부정소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말할 것도 없고$_3$ '은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AX은/는 말할 것도 없고 B도/까지(도) /마저(도) /조차 X

'말할 것도 없고$_3$ ' 표현은 A를 포함한 사태(AX)를 긍정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그보다 더 심한 B를 포함한 사태(BX)도 긍정한다. BX가 일어났으니 AX는 더욱 쉽게 일어난다.

2.5. '하물며' 표현

'하물며'의 사전적 의미는 '앞 내용보다 뒤 내용에 대한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낼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 주는 말'의 뜻으로 기술 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다.
'하물며'는 주로 '-거든', '-거늘', '-ㄴ데' 등의 어미로 끝나는 절 뒤에서 반어적이거나 감탄적인 의문문 뒤에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38) 가. 천으로 만을 대항하기도 어려운 노릇인데, 하물며 만의 네 곱절인 사만 명이랴.
나. 동물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어찌 그 근본을 잊을 수 있겠는가?

다. 사삿일도 이러하거든 하물며 일대 국사야 더 말하리요.

2.5.1. '하물며$_1$ ' 표현의 문법적 의미적 특성

본고는 '앞의 내용에 대해 부정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뒤의 내용에 더 강한 부정'의 뜻을 가지는 '하물며'를 '하물며$_1$ '로 표기한다.

(39) 가. 중원 (보는) ...
서전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한 끼를 위해 자존심을 파는 사람을 손가락하지 않는 법일세 ... 하물며 누명을 쓰고 무간지옥까지 떨어져 본 이정현이,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야 말이 되는가?
중원 (매섭게 보는) .... <그린로즈, 20회>
나. 남편의 외도 : 신혼 시절에도 찾아오지 말란 법 없다 남편의 외도는 여자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고민이다. 살만큼 산 나이의 여자도 그 꼴은 차마 못 본다는데 하물며 깨가 쏟아져도 시원찮을 나이에 남편의 외도를 겪는다는 것은 여자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문이다.

예문 (39) 는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39가) 한 끼를 위해 자존심을 파는 사람을 손가락하지 않는 법일세 ... 하물며 누명을 쓰고 무간지옥까지 떨어져 본 이정현이,

AX: 한 끼를 위해 자존심을 파는 사람을 손가락하지 않는 법(F)
BY: 누명을 쓰고 무간지옥까지 떨어져 본 이정현 (F)
F: 않다.

(39나) 살만큼 산 나이의 여자도 그 꼴은 차마 못 본다는데 하물며 깨가

쏟아져도 시원찮을 나이에 남편의 외도를 겪는다는 것은 여자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문이다.

AX: 살만큼 산 나이의 여자도 그 꼴은 못 본다.(F)
BY: 깨가 쏟아져도 시원찮을 나이에 남편의 외도를 겪는다는 것은 여자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문이다.(F)
F: 못, 힘들다

'하물며$_1$ '은 아래와 같이 형식화 할 수 있다.

<A 도 FX 거든/거늘/ㄴ데, 하물며 B>

'하물며$_1$ ' 표현은 부정소가 A와 B에 모두 작용을 하여 B를 포함한 사태(BX)보다 A를 포함한 사태(AX)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 AX가 일어나지 못하였음은 말할 나위도 없으니, BX는 더욱이 일어나지 못한다.

2.5.2. '하물며$_2$ ' 표현의 문법적 의미적 특성

본고는 '앞의 긍정적인 내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뒤의 내용에 대한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하물며'를 '하물며$_2$ '로 표시한다.

(40) 주태: (흥분한) 구두약속두 약속인거야! 어.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 콱 박아야 계약이 되는거냐! 일개 개인과 개인이 약속을 해도 구속력을 갖추는건데. 어. 하물며 기업대 기업이야! 태화당이 아무리 구멍가게 만한 회사라두 그렇지. 한 회사의 대표가 이렇게 말을 바꾸고 신의가 없어서야 되겠냐!
국희: 죄송합니다. 아저씨 말씀이 옳아요. 기업과 기업간의 약속인데...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렇지만...물건을 사고도 소비자가 마

음에 안들면 교환을 할 수 있는건데, 한 회사의 장래가 달린 일입니다. 하청계약건은 철회하겠습니다. <국희, 1회>

예문 (40) 은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AX: 일개 개인과 개인이 약속을 해도 구속력을 갖춘다.
BX: 기업대 기업이야!

'하물며$_2$ '는 아래와 같이 형식화할 수 있다.

A 도 X 거든/거늘/ㄴ데, 하물며 B

2.6. '이 다 뭐야' 표현

2.6.1. '이 다 뭐야$_1$ ' 표현의 문법적 의미적 특성

본고는 '어떤 사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이 부정하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가지는 '이 다 뭐야'를 '이 다 뭐야$_1$ '로 표기한다.

(41) 치아 검사가 다 뭐야. 손금도 제대로 못 봤다는데.

(41)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즉, (54)예문은 손금을 보고 나서 치아 검사를 받기로 한 상황으로 예측 가능하다. (54)는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AX: 치아 검사(F)
BY: 손금도 제대로 못 봤다.(F)

F: 못

'이 다 뭐야$_1$ ' 은 아래와 같이 형식화 할 수 있다.

<AX이 다 뭐야, B도/조차(도) /마저(도) FY>

'이 다 뭐야$_2$ ' 표현은 부정소가 A와 B에 모두 작용을 하여 A를 포함한 사태(AX)보다 B를 포함한 사태(BY)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 BY가 일어나지 못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으니, AX는 더욱이 일어나지 못한다.

2.6.2. '이 다 뭐야$_2$ '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본고는 '말할 나위도 없고 도리어'의 뜻을 나타내는 '이 다 뭐야'를 '이 다 뭐야$_2$ '으로 표기한다.

(42) 시봉: 느이 엄마가 너 가질 때 하얀 목련꽃이 활짝 피어있는 태몽을 꿨다는데.... 니가 이렇게 하얀 가운입은 의사를 신랑으로 맞을려고 그럴 줄은 또 몰랐구나.... 역시... 팔자란 게 있다니까...
순애; 고모 좀 그만하실래요?
시봉: 이런 의사 총각이 있었으면 진작에 애길하지. 이 총각은 마음이 좋아서 열쇠 세 개 바라는게 다 뭐야... 오히려 처가에 열쇠꾸러미를 주겠네 주겠어... 아우, 내가 말년에 호강할 줄 알았다니까.
준호:. . . (신영보고 어색하게 웃는데). . . <결혼하고 싶은 여자,10회>

예문 (42)는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AX: 열쇠 세개를 바라다.(F)
BY: 처가에 열쇠꾸러미를 주겠네.

표지: 오히려

'이 다 뭐야$_2$ ' 표현은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AX 이 다 뭐야>, (오히려/도리어) BY

표현은 기대했던 A를 포함했던 사태(AX) 가 일어나지 못하였고 생각지도 못한 B를 포함한 사태 (BY) 가 일어난다.

2.6.3. '이 다 뭐야$_3$ '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본고는 '어떤 사실은 인정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그보다 더한 사실까지 인정하는 뜻'의 '이 다 뭐야' 를 '이 다 뭐야$_2$ '로 보려고 한다.

(43) 국희: 아야...
신영모: 참아봐, 구리무 발라줄테니까.
신영: (방에서 나와 거실쪽으로 온다)
신영모: 넌, 공부 하라니까 왜 자꾸 나와. 내일이 시험인 애가..정신 못 차리구.
아이구, 세상에, 콩알만한게 가출이 다 뭐야, 유랑극단이라니... 쯧쯧.
신영: 그만 해...물 먹으루 나왔단 말야.
신영모: 얼른 못 들어가! 니가 붕어새끼야, 들락날락 들락날락 물만 먹게! <국희, 1-20회>

(43)은 '가출을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유랑극단에까지 갔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AX: 가출
BX: 유랑극단

'이 다 뭐야$_3$ ' 표현은 A를 포함한 사태(AX)를 긍정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그보다 더 심한 B를 포함한 사태(BY)도 긍정한다. BY가 일어났으니 AX는 더욱 쉽게 일어난다.

2.6.4. '이 다 뭐야$_4$ '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

본고는 '잠시 미루어 문제 삼지 않음, 우선 내버려둠'의 의미를 가지는 '이 다 뭐야'를 '이 다 뭐야$_4$ '로 표기한다.

(44) 재미가 다 뭐야, 내가 지금 며칠째 뭐에 씌여 있다.

(44)는 '재미는 차치물론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며칠째 뭐에 씌여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2.7. 의미지도를 이용한 요약

그림-1: 한국어 '커녕' 및 관련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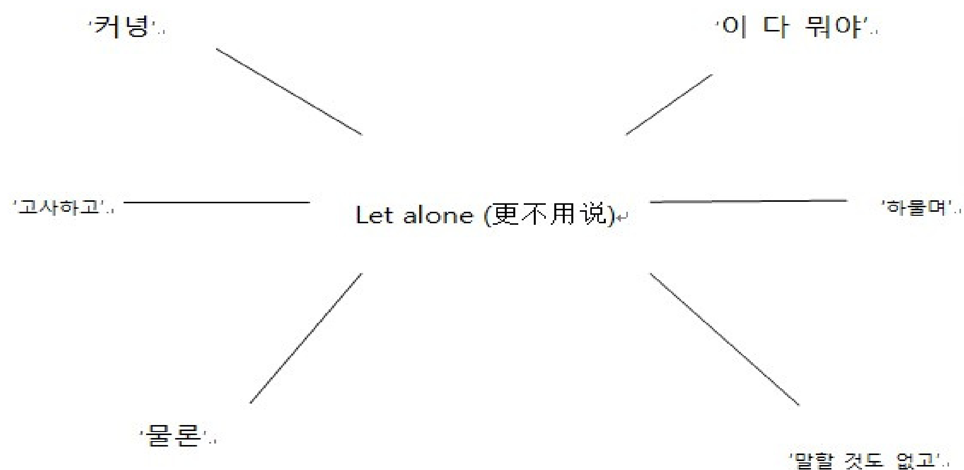


표-1: 한국어 ‘커녕’ 및 관련 표현의 의미

의미	let alone (更不用說)
①	어떤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부정하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
②	어떤 사실은 말할 나위도 없이 부정하고 그보다 더 심한 일을 맞이하는 뜻
③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도리어
④	어떤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긍정하고 그보다 더한 것까지 긍정하는 뜻
⑤	잠시 미루어 문제 삼지 않음, 우선 내버려둠의 차치물론(且置勿論)의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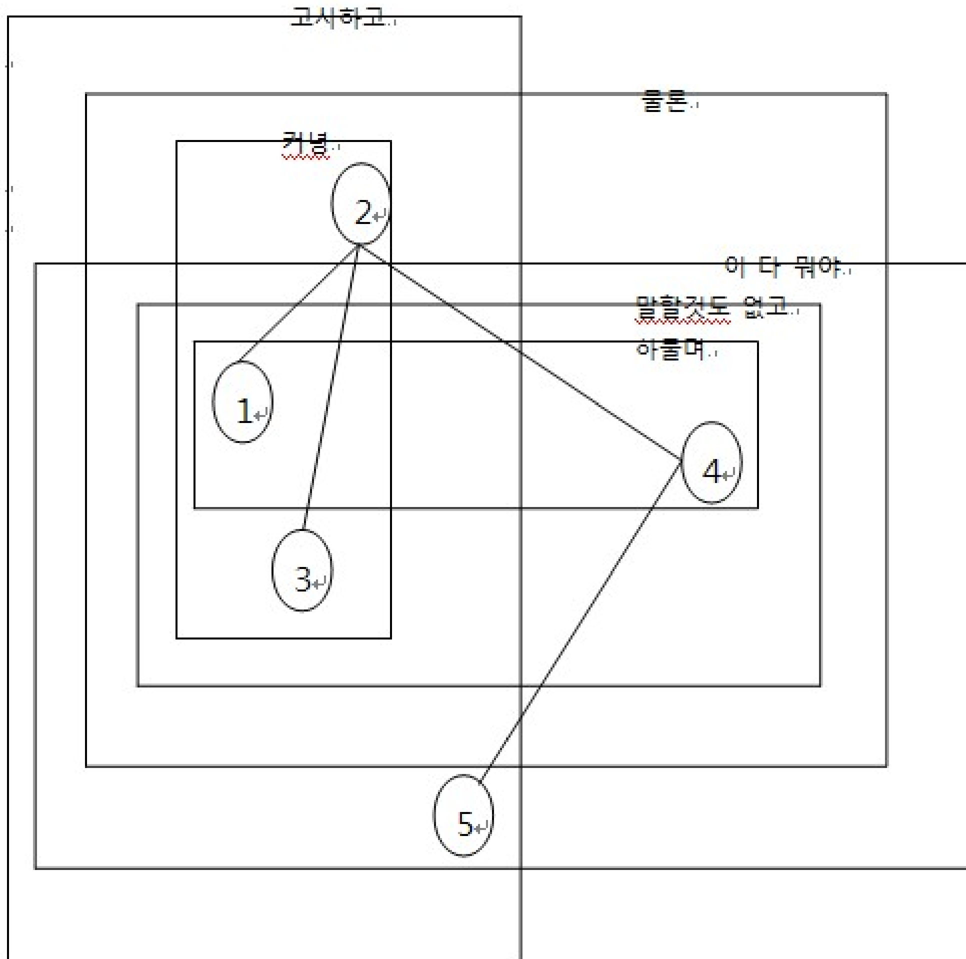
위의 표에서 정리한 의미의 번호에 따라 ‘커녕’ 및 관련 표현들이 각기 가지는 의미를 표로 정리한 것은 아래와 같다.

표-2: 한국어 ‘커녕’ 및 관련 표현들이 대응되는 의미 정리

	커녕	고사하고	물론	말할것도 없고	하물며	이 다 뭐야
①	√	√	√	√	√	√
②	√	√	√			
③	√	√	√	√		√
④			√	√	√	√
⑤		√				√

어떤 의미역에 속하는 개념들의 상호관계를 탐구하여 개념지도를 그리고, 특정 언어에서 여러 요소들이 이 개념공간을 분할하는 양상을 의미지도로 그릴 수 있다. (박진호,2012) 이러한 의미지도 모형을 이용하여 ‘커녕’ 및 관련 표현의 우리의 이해를 깊게 하고자 한다.

그림-2: ‘커녕’ 및 관련 표현의 의미지도



3. '커녕' 및 관련 표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일찍이 Fillmore et al.(1988)에서 한국어의 '커녕' 및 관련 표현에 해당하는 영어의 'let alone' 통사·의미론적인 특성으로 아래의 여섯 가지를 제안한 바가 있다.

(45) 가. 접속기능
나. 조각문
다. 두 개의 초점
라. 부정극어
마. 함의
바. 척도

이 장에서는 Fillmore et al.(1988)에서 제시한 특징이 한국어의 '커녕' 및 관련 표현의 특징을 아울러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 보려고 한다.

3.1. 접속기능

이지연(2006:49-50)에서 '커녕'을 접속 조사로 논의하였고, 이규호(2006)에서도 '커녕'을 대등 접속조사로 본 바가 있다. '커녕'이 접속조사로 논의 되었다면, '커녕'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고사하고', '물론(이고)', '말할 것도 없고', '하물며', '이 다 뭐야'도 접속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6) 가. 큰절커녕 아무 인사도 못 드리고 어물어물 얼버무려 버리고 말았다.
나.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김정일에 의한 권력승계는 고사하고 김일성 체제마저도 유지되기가 어려울지도 모른

다.

다. 실제로 요도호사건 관련단체 역시 최근 들어 중국은 물론 러시아로부터도 중고차를 사들여 무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라. 본인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자녀, 그 친지들까지도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험악스런 업보를 치러야 했던가.

마. 미물의 생명도 귀중한 법인데, 하물며 사람의 생명이야.

바. 폭죽이 다 뭐야, 나는 폭탄도 무서워하지 않아.

위의 예는 ‘커녕’ 및 관련 표현은 서술어 또는 부정소와 관련을 가져 선행절과 후행절 A, B가 서로 연결을 갖는 것으로 접속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에 ‘커녕’ 및 관련 표현이 서술어 또는 부정소와 관계를 맺지 않는 예를 몇 가지만 제시한다.

(47) 가. 상커녕 벌을 받았다.

나. 날씨가 너무 추워서 구경은커녕 동태가 될 뻔하였소.

다. 잠은 고사하고 내내 전전긍긍하는 마음이었다.

라. 본전은 고사하고 몸만 축난다.

접속기능을 한다는 것은 자매항이 대등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의 예문(74)는 선행절 A는 부정을 나타내고, 후행절 B는 긍정을 나타내어 이것을 대등적인 접속으로 보기 어렵게 한다.

‘커녕’ 및 관련 표현에서 ‘어떤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부정하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가진 ‘커녕$_1$ ’, ‘고사하고$_1$ ’, ‘물론이고$_1$ ’, ‘말할 것도 없고$_1$ ’, ‘하물며$_1$ ’, ‘이 다 뭐야$_1$ ’와 ‘어떤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긍정하고 그보다 더한 것까지 긍정하는 뜻’의 ‘물론$_4$ ’, ‘말할 것도 없고$_3$ ’, ‘하물며$_2$ ’, ‘이 다 뭐야$_3$ ’은 그 범주를 물론하고 특수하게 접속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 조각문

서은아 외 (2004)에서는 조각문(sentence fragment)이란 온전한 문장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 감탄사나 부사어, 명사구 등과 같은 문장의 한 조각으로 문장을 끝맺는 문장 유형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조각문은 성분을 다 갖추지 못한 '조각'이 문장의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기에 일반적으로는 조각이 하나의 문장이 될 때 그 문장을 조각문이라고 부른다. 그리하여 이에 대응하는 명칭을 '불완전문', '미완성문', '생략문', '소형문', '소형발화'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5)

'커녕' 및 관련 표현은 문장 성분을 온전하게 갖추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문장 성분이 생략된 형태, 그리고 상황 의존적인 특성이 강한 문장 형식이다.

(48) 가. 지구촌의 정보화 현상을 외면하는 교육은 미래지향적이 아니며, 무시하는 학문연구는 자체발전을 부정하는 자세이어서 선진국은커녕 중진국 수준도 유지 못하는 침체를 초래할 것이다.

나. 지구상에는 마음 놓고 마실 물은 고사하고, 안심하고 손 발을 담글 수 있는 물도 한 방울 남지 않았다.

다. 실제로 요도호사건 관련단체 역시 최근 들어 중국은 물론 러시아로부터도 중고차를 사들여 무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라. 양가 집안을 비롯해서 자네 부부와 얼굴을 익혀온 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처남 자신에게도 두고두고 다시없을 상처로 남을 일 아닌가.

(48) 을 완정하게 발화를 하면, (48가) 는 '선진국의 수준도 유지 못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중진국의 수준도 유지 못하였다.'이고 (48나) '지

---

5) 구어 조각문을 소형문으로 규정한 학자는 윤평현(2003), 성광수(1972), 소형발화로 다룬 장소원(1994), 미완성 문장으로 다룬 노대규(1996), 문장 조각으로 다룬 권재일(2003)이 있다.

구상에는 마음 놓고 마실 물이 남지 않은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안심하고 손발을 담글 수 있는 물도 남지 않았다'이고, (48다) 는 '중국으로부터 중고차를 사들여 무역한 적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로부터도 중고차를 사들여 무역한 적이 있다.'이며, (48라) 는 '얼굴을 익혀온 지인들에게 두고두고 다시 없을 상처를 남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에게도 두고두고 다시 없을 상처로 남는다.'로 발화하여야 하는 것인데, '커녕' 및 관련 표현을 사용하면서 길게 발화를 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간단하게 줄여서 발화를 하여도 청자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다 뭐야'와 '하물며' 표현이 더욱 그러하다.

(49) 가. 사삿일도 이러하거든 하물며 일대 국사야.
　　 나. 밥이 다 뭐야, 아직 집에도 못 도착했는데.

이로부터 볼 때에는 '커녕' 및 관련 표현은 완정한 성분이 다 발화되지 않고 있지만, 앞뒤 맥락을 통한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고 실시간적인 처리 과정에 있어서 경제적임으로 특수한 조각문으로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래의 예문을 보기로 하자.

(50) 가. 너무 가난해서 병원에 가는 것은 고사하고 약도 제대로 못쓰고 있던 그 당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밤을 꼬박 새우며 할머니 곁에 있어 드리는 것뿐이었다.
　　 나. 가장 완벽한 균형과 예술적인 장식을 가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편안하고 단단하기까지 한 완벽한 상상 속의 침대가 첫 번째 침대일 것이다.
　　 다. 동남아시아와 중동지역의 일부 남편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평생 책임지고 있다. 후처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생계도 보살펴야 한다.

(51)의 예문에서와 같이 '것'에 의한 명사절이 모두 조각문의 기능을

한다면, 한국어에는 조각문으로 보아야 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커녕' 및 관련 표현의 부분적 조각문의 특징에 대하여서는 흥미로운 문법 현상임은 틀림없다.

3.3. 쌍 대조 초점

한국어는 다양한 문법형식을 지니는 한편으로 초점과 화제가 문장 형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영어나 중국어는 표지가 불분명하여 대조 주제를 나타내는 것인지 대조 화제를 나타내는 것인지 알기 어렵지만 한국어의 대조 초점과 대조 화제는 보조사 '은/는'과 격조사 '이/가'에 의하여 많이 논의 되었다. 일반적으로 '은/는'은 대조 주제 표지로, '이/가'는 대조 화제 표지로 보아 왔으나, 전영철(2006)에서는 '은/는'이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고 논의한 바가 있다. '은/는'이 대조 화제를 나타낼 때는 척도의 함축을 유발하지 않고 대조 초점만이 척도 함축을 유발한다는 것에서 둘을 가를 수 있음을 지적한 바가 있다.
'커녕' 및 관련 표현은 척도를 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2)가. 과학 과목은 언제 배우나?
  나. 생물은 1학기에 배워요.
(53)가. 경기 결과가 어떨 것 같니?
  나. 은메달은 확실해요.(전영철 2006)

위의 예문에서(52)은 척도를 함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조 주제라 할 수 있고 (53)은 '금, 은, 동'과 같이 척도를 함축하므로 대조 초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커녕' 및 관련 표현으로 나타낼 경우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54)과학 과목은 1학기에 배우니?
가. 과학은 물론 생물도 1학기에 배워요.

나. 과학은커녕 영어도 1학기에 안배워요.
(55)은메달을 딸 것 같니?
가. 은메달은 물론 금메달도 딸 것 같아요
나. 은메달은커녕 동메달도 따기 어려워요.

위의 예문과 같이 과학, 물리, 영어는 대안 집합을 이루는 성원으로 어떠한 척도를 함축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나, '커녕' 및 관련 표현으로 나타낼 경우에는 이들은 척도를 이룰 수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은/는…도'의 표현에서 '도'와 관련이 있는 후행하는 말을 신정보임이 확인된다. 일찍이 임동훈(2007)에서와 최규현(1999)에서 '도'가 초점을 나타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어의 일부분의 '커녕' 관련 표현을 쌍 대조 초점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커녕' 및 관련 표현들은 항상 '은/는…도'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잠시 미루어 문제 삼지 않음, 우선 내버려 둠'의 의미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은 비교를 하는 차원이 아니다.

(56) 가. 임무는커녕, 여태껏 그 놈 얼굴 한번 못봤다구요!
나. 법적 차원은 고사하고라도 도덕적 차원에서 기사지대하기 때문이다.
다. 재미가 다 뭐야. 내가 지금 며칠째 뭐에 씌워 있다.

'커녕' 및 관련 표현에서 '말할 나위도 없고 도리어'의 뜻을 가진 표현도 마찬가지로 후행절에서 초점의 표지를 찾아 보기 힘들다.

3.4. 부정극어

'커녕' 및 관련 표현에서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가지는 표현을 부정극어로 보려고

한다.

(57) 가. 대학생 소모임들은 연락처도 없이 각자 풀뿌리운동에만 머물며 쟁점에 대한 공동 대응은 고사하고 자료교환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나. 전공지식의 내구현상이 1백년일 때도 있었지만 근래는 5년이란 학설도 있고, 최근 들어서는 1년은 고사하고 5개월도 안된다는 것이 통설로 되고 있다.

다. 신문사는 물론,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에도 채용보증금을 받는 곳은 없다.

라. 종묘대향(宗廟大享)이나 춘추석전(春秋釋奠)과 같은 거창한 제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가정의 제사도 오늘날 중국에서는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다.

마. 그에게는 일상필수품조차 없다. 하물며 사치품이야.

바. 치아 검사가 다 뭐야. 손금도 제대로 못 봤다는데.

'커녕' 및 관련 표현에서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 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가진 '커녕$_1$ ', '고사하고$_1$ ', '물론$_2$ ', '말할 것도 없고$_2$ ', '하물며$_2$ ', '이 다 뭐야$_1$ '은 표현에서 항상 '안', '못', '-지 않다', '-지 못하다', '아니다', '모르다', '없다'등의 명시적인 부정소를 드러낸다.

구종남(2012)에서는 '힘들다', '어렵다'와 같은 단어를 반부가 함수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부정극어의 허가 조건으로 받아 들인 바가 있다.

(58) 가. 더 이상 가계를 운영하기 어렵다.

나. 차마 그런 말을 하기 어렵다.

다. 요즘에는 그런 것 도무지 구경하기 힘들어요.

라. 피곤해서 꼼짝도 하기 힘들어요.

‘커녕’ 및 관련 표현은 명시적인 부정문에서 허가 될 뿐만 아니라, ‘어렵다’, ‘힘들다’와 같은 성분부정에 의해 허가 될 수도 있다.

(59) 가. 우마는커녕 사람들도 다니기 힘들다.
나. 들키지 않게 한 놈만 골라 깨워야 해. 여러 놈이 우 일어나면 눌은밥은커녕 밥테기 하나도 어려울걸?
다. 이렇게 척박한 교육풍토 속에서는 예절의식의 정립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윤리적인간도 배양해내기 어렵게 될 것이다.
라. 소풍은 말할 것도 없고... 외식 한번 하기도 하늘에 별 따기죠.

(59라) 에서 ‘하늘에 별 따기’는 ‘어렵다, 힘들다’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종남(2012)에서는 ‘커녕’은 제한적 용법의 부정극어로 분류하였다. ‘커녕’의 여러 가지 용법 중에서 ‘NP(는)커녕 NP 도’의 구성을 항상 부정 문맥에서만 사용된다는 점에서 ‘-(은/는)커녕’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부정극어로 보았다. [6] 그러한 ‘커녕’은 ‘NP(는)커녕 NP 도’의 구성에서 항상 부정 문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60) 가. 십 환커녕 백환이라도 받겠다.
나. 오 년커녕 십년이나 지났다오, (최현배, 1971)

예문 (60가) 는 ‘십환은 말할 나위도 없이 받겠고, 백환이라도 받겠다.’ 는 의미를 가지고 (60나) 는 ‘오년이 지난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십년이나 지났다오’의 의미를 가진다.(60) 와 같은 ‘NP(는)커녕 NP 도’ 형식을 가지는 ‘커녕’은 더 이상 부정극어가 아니다.

6) ‘-커녕’대신 ‘-은 고사하고’가 대치되어도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은 고사하고’ 역시 특수한 상황에서 기능한다고 보았다.

3.5. 함의

문장과 문장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으로 함의가 있다. 어떤 문장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때 동시에 사실로 인정되는 다른 문장이 있을 수 있다.

(61) 함의: 문장 p가 참이면 반드시 문장 q가 참이고, 문장 q가 거짓이면 반드시 문장 p가 거짓일 때, 문장 p는 문장 q를 함의한다.

(62) 함의의 진리표

명제: p q

① T → T

② F → T or F

③ F ← F

④ T or F ← T

함의의 진리표를 풀이하면, 명제 p와 q 사이는 위와 같이 함의 관계로 표시할 수 있다. (p가 참이면 q가 참이며, q가 거짓이면 p가 거짓이다. p가 거짓이면 q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고, q가 거짓이면 p가 거짓이다. p가 거짓이면 q가 참 또는 거짓이며, q가 참이면 p가 참 또는 거짓이다.)

아래에 '커녕' 및 관련 표현이 가지는 긍정표현을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63) 가. 중간은 물론 1등도 하였다.

나. 중간은 말할 것도 없고 1등도 하였다.

위의 문장을 함의의 진리표에 대입하여서 논의하면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64) 가. 1등을 하였다.(T) → 중간도 하였다. (T)

나. 1등을 하지 못하였다.(F) → 중간은 했을 수도 있고 하지 않았을 수가 있다.

(T or F)

다. 중간을 하지 못하였다.(F)→ 1등을 하지 못하였다. (F)

라. 중간을 하였다. (T) → 1등을 했을 수도 있고 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T or F)

(64가)는 '1등을 하였다'는 명제가 참이면, '중간도 하였다'는 명제가 참이 되고, (64나) '1등을 하였다'라는 명제가 거짓 명제라는 것은, '1등을 하지 못하였다'를 나타내고, '1등을 하지 못하였으면, 중간은 했을 수도 있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명제가 성립이 된다. (64다)는 '중간을 하지 못하면 1등을 하지 못하였음'이 성립된다. (64라)는 '중간을 하였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1등을 하였다'라는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즉, '중간을 했으면 1등을 했을 수도 있고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를 나타낸다.

'커녕' 및 관련 표현이 가지는 부정 표현에서 나타나는 예도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안남용(1996)에서는 함의를 상향함의(upward entailment)와 하향함의(downward entailment)로 나누어 논의한 바가 있다. 상향함의는 하위 집합이 상위 집합을 함의하는 경우를 말하고 하향 함의는 상위 집합이 하위 집합을 함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67) 가. 중간은 물론 일등도 하였다.

나. 중간은 말할 것도 없고 1등도 하였다.

(66)에서'1등'은 '중간'보다 높은 임의의 항이 됨으로 '1등'은 '중간'을

함의하는 것으로 보아져, 상위 집합이 하위 집합을 함의 하는 하향함의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68) 가. 1등은 고사하고 중간도 못 가는 성적이다.
　　나. 1등은커녕 중간도 못 가는 성적이다.

(68)에서 '중간'은 '1등'보다 낮은 임의의 항이 되므로 '중간도 못 가는 성적'은 '1등에 못 가는 성적'을 함의 하는 것으로 보아져, 하위 집합이 상위 집합을 함의 하는 상향함의로 볼 수 있다.

'커녕' 및 관련 표현이 긍정문에서는 하향함의를 나타내고, 부정문에서는 상향함의를 나타낸다 . 하지만, 아래의 문장에서는 함의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69) 가. 이 총각은 마음이 좋아서 열쇠 세 개 바라는게 다 뭐야... 오히려 처가에 열쇠꾸러미를 주겠네 주겠어...
　　나. 그 세계의 누구도 원숭이의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에 나타나는 인간의 환멸을 용납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인식의 확장으로 받아들인다.
　　다. 임무는커녕, 여태껏 그 놈 얼굴 한번 못봤다구요!

(69)예문들은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 선행절이 부정을 나타내고 후행절이 긍정을 나타내면 선후행절의 함의 관계를 이룰 수 없게 된다. (89다) 와 같은 예문은 '임무는 잠시 놔두고'의 의미로 후행절에는 화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문장이 오기 때문에 더욱 함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커녕' 및 관련 표현에서 '어떤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부정하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가진 '커녕$_1$ ', '고사하고$_1$ ', '물론이고$_2$ ', '말할 것도 없고$_2$ ', '하물며$_2$ ', '이 다 뭐야$_1$ '와 '어떤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긍정하고 그보다 더한 것까지 긍정하는 뜻'의 '물론$_1$ ', '말할 것도 없고$_1$ ', '하물며$_1$ ', '이 다 뭐야$_2$ '는 함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제외한 나머지는 함의 관계로 볼 수 없다.

3.6. 척도

'어떤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부정하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가진 '커녕$_1$ ', '고사하고$_1$ ', '물론이고$_2$ ', '말할 것도 없고$_2$ ', '하물며$_2$ ', '이 다 뭐야$_1$ '와 '어떤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긍정하고 그보다 더한 것까지 긍정하는 뜻'의 '물론$_1$ ', '말할 것도 없고$_1$ ', '하물며$_1$ ', '이 다 뭐야$_2$ '는 척도를 가진다.

'어떤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부정하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과 '어떤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긍정하고 그보다 더한 것까지 긍정하는 뜻'을 가지는 척도의 방향이 반대된다.

3.7. '커녕' 및 관련 표현의 상호주관성

이상에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커녕' 및 관련 표현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조각문, 부정극어, 함의, 척도, 접속기능, 두 개의 초점은 전반적인 '커녕' 및 관련 표현의 특징을 설명해주지 못하였다. 본장에서는 '커녕' 및 관련 표현들의 전반 적인 특징을 설명함에 있어서 '상호주관성' 이론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3.7.1. 상호주관성 개념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는 '너'와 '나'로 양분돼 있다. 사회학적으로는 이러한 사회를 상호주관성이 낮은 사회라고 한다. 상호주관성을 농통하게 말한다면 내가 보는 견해와 타인이 보는 견해가 일치한 정도를 말한다. 사회의 융합이 잘 돼 있어 상호교류가 원활하고 서로간의 이해하는 정도가 높으면 상호주관성이 높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는 서로 간에 칸막이가 돼 있어 '너'의 견해와 '나'의 견해에서는 일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 다루는 '커넝'관련 표현들이 어떻게 상호주관성에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주관성은 20세기 후반, Benveniste, Lyons, Langacker, Traugott 등 인지언어학자들에 의해서 주창되었다. 주관성은 '화자가 담화과정에서 드러내는 자아의 흔적'으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자아의 흔적'은 표현내용에 대한 화자의 시각, 정감, 인식의 세 가지 각도에서 파악되고 있다.

(70) 가. 몇시야?
나. 열시다.

(71) 가. 몇시야?
나. 벌써 열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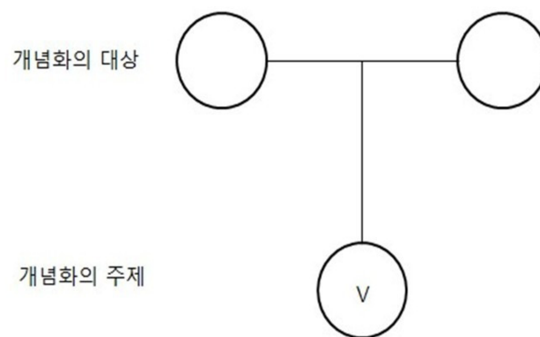
(72) 가. 몇시야?
나. 이제 열시밖에 안됐어.

(70)는 화자의 주관적인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71, 72)는 화자와 청자의 상호주관적인 사실을 보여준다. (71)로 발화함에 의하여 화자는 청자에게 '시간이 빨리 지났네' 와 함축적 의미를 드러냄으로 청자에게 화자가 '시간이 빨리 지나 할 일에 대한 조급한 마음'을 캐치할 수 있어 화자와 청자가 공동적인 주관을 공유하게 되고 (72)와 같이 화자가 '이제 열시밖에 안됐어'와 같이 발화함으로 청자에게 '아직 시간이 있네'와 같은 인식을 하게 함으로 청자와 화자의 주관이 공동으로 성립된다. 우리는 화자 중심에 의하여 대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화자 중심의 인지적 관점에서 청자를 고려한 상호 교섭적인 관점으로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 현실 사회는 주관적 말하기에 치우쳐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기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종종 상대방을 수용할 줄 모르는 발화를 하고 있다. 이는 상호주관성을 인식하고 이것이 실현되는 상호

교섭에 관심을 갖는다면 자기중심적인 현상에 치중하는 발화거나 행위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으로 주관성으로부터 상호주관성에로 변화하는 것이 '화자'와 '청자'가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갈 수 있게됨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자기 주관과 타자의 주관인 타주관이 만나 상호주관이 형성되는 것은 어휘나 문법요소에서 찾을 수 있다니 어찌 흥미롭지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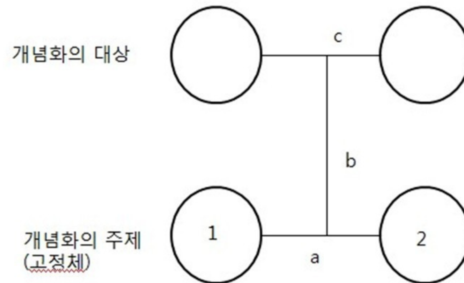
Langacker(1987)에서의 '해석관계도 표시'에 기초하여서 Verhagen(2005)는 '주관성'을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표시하였다.

그림-3: 관찰 배열



이 그림은 주로 한 주체와 개념화의 대상에 관한 2차원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관계망이 있는가 하면, 아래와 같이 조금 더 복잡해진 관계망도 있다. Langacker(1987)의 '해석관계도 표시'에 기초하여 Verhagen(2005)에서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그림-4: 해석 형상과 기본 요소



상호주관성이 주관을 배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상호주관성이라는 말 자체가 주관이 전제된 말이다. 상호주관성은 주관성이 놓지고 있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주관성은 나와 같은 의식을 가진 다른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고, 두 사람 이상이 공통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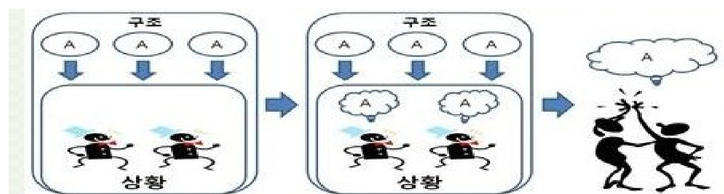
발화를 하는 '화자'와 발화를 듣는 '청자'의 화행에 대한 공동적인 인식 태도를 나타내어 언어의 의미 측면에 영향을 주고, 화행의 영역성을 표시한다.

언어의 사용은 둘 이상의 개념화의 주체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언어 사용의 "고정체"는 발화에 책임이 있는 발화를 하는 '화자' 그림에서의 1 이 그와 대등 관계를 맺는 발화를 듣는 '청자' 그림에서의 2 이다. 발화를 하는 '화자'와 발화를 듣는 '청자'를 각기 개념화자라고 칭하고 둘을 아울러 '두 개념화의 주체'라고 한다. 두 개념화자 그리고 서로에 대한 모형과 담화 상황에 대한 모형을 포함해 그들은 상호 공유하는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Verhagen(2005)에서는 이에 대하여 언어학적 고찰을 하였는데 대체로 언어 발화의 요점은 개념화자 1이 개념화자 2에게 특정한 방식으로('벌써, 밖에'와 같은 표지를 사용하는 특정한 방식) 개념화의 대상에 함께 주의를 기울여서 공동적으로 같은 이해를 하도록 유

도하는 것이다. 즉, 두 개념화자는 언어에 의하여 인지를 조정하는데 관여하여서 한 개념화자는 다른 개념화자에게 개념화의 대상의 각각의 특정한 특성에 대하여 기술을 함으로써 선수를 친다. 두 개념화자 간의 이러한 대등한 관계는 그림에서 a로 표시할 수 있겠고, 두 개념화의 주체사이의 공동주의와 개념화 대상의 관계를 그림에서 b로 표시할 수 있으며, 두 개념화 대상의 대등한 관계는 그림에서 c로 표시한다.

상호 주관성은 '공동주관성(共同主觀性)' 또는 '간주관성(間主觀性)'으로 불리기도 한다. 상호 주관성이나 주관성은 모두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문장에 쓰인다. 임의적인 화행에서 발화하는 '화자'와 발화를 듣는 '청자'는 서로 다른 입장에 놓여 있다. 주관성은 자기 중심적이고 화자의 고립된 감정에 치우치게 하는 반면, 상호주관성은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을 중시하여 자신의 내적인 논리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소통하여 공동적인 인식을 갖는 것에 중점을 둔다. 아래의 그림과 같다 .

그림-5: 상호주관성



3.7.2. '커녕' 및 관련 표현의 상호주관성 체현

'커녕' 관련 표현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 선행 발화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추론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발화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상호주관성 조화(intersubjective coordination)는 '커녕' 표현의 관습적 의미, 기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Fillmore et al. (1988)에서 주장한 대로 선행 발화에서는 A가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해당 발화에서 A로부터 B로 관심의 초점을 옮기는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다.

(73) 가: 이번 월드컵 대회 예선전을 못 봤는데 어떻게 됐니? 브라질이 우승할 것 같니?
나: 브라질? 우승은커녕 결선 진출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야.
가: 그래? 예선에서 잘 못 했어?
나: 현재 2무승무야. 남은 한 경기에서 큰 골 차로 이겨야 결선에 올라갈 수 있어.

(73)에서 처음 (가)의 발화에서는 브라질의 우승 가능성이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두 번째 (나)의 발화에 의해 관심이 브라질의 결선 진출 여부로 옮아가고 있다.

한편, Verhagen (2005)에서 지적한 담화 패턴도 가능하다.

(74) 가: 철수가 영희한테 과연 사과할까?
나: 사과는커녕 아마 말도 안 하려고 할걸. 그 문제는 이야기할 것도 없어.
가: 그렇구나. 두 사람 관계가 회복되는 건 기대하기 어렵겠구나.

(74)의 경우 (나)는 A와 B가 속한 척도 전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그 뒤의 발화는 역시 그 문제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75) 가: 최근 전국의 모든 산에 묘지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같아. 묘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나: 지금 죽은 사람은커녕 산 사람을 위한 공간도 부족한 형편이잖아?

가: 글쎄말이야. 그러니 매장 대신 화장을 장려하고 납골당을 많이 만든다든지,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공원묘지에 매장하는 것을 장려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

(75)의 경우는 처음 (가)의 발화에서 A가 관심의 대상이었고, (나)의 발화에서 '커녕'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관심이 B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A로 유지되고 있다.
'커녕' 및 관련 표현은 일반적으로 청자와 화자의 소통을 중심으로 하여 자신의 주관을 나타냄에 상대방의 원래 가지고 있던 주관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뚜렸하다 .

(76) 연 희:(웃으며) 니 말 듣고 나니까, 조금 그런 것도 같은데.. 나랑 헤어진 덕분에 너 준영이 만났잖아. 그럼 고마워, 해야지, 아냐?
지 오 : <u>고맙긴커녕 상처만 가득하다</u>, 임마. (하고, 창을 내리고, 바람맞으며,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한쪽에 커튼이 쳐진 것 같은, 지오, 눈을 부비고, 다시 하늘을 보는, 눈이 왜 이런가 싶다. <그들의 사는 세상, 13집>

(76)에서는 연희는 지오가 '자신과 헤어지고 난 후 준영이를 만나게 되었으니 자신한테 고마워 해야 한다'는 주관이 있음이 드러난다 . 만약 지오가 자신의 주관만 진술하여고 한다면 아래와 같이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77) 연 희: (웃으며) 니 말 듣고 나니까, 조금 그런 것도 같은데.. 나랑 헤어진 덕분에 너 준영이 만났잖아. 그럼 고마워, 해야지, 아냐?
지 오: <u>상처만 가득하다</u>, 임마. (하고, 창을 내리고, 바람맞으며,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한쪽에 커튼이 쳐진 것 같은, 지오, 눈을 부비고, 다시 하늘을 보는, 눈이 왜 이런가 싶다. <그들의 사는 세상, 13집>

(77)예문은 어색한 것은 고사하고라도 '지오는 연희랑 헤어져서 상처가 가득한지' 아니면, '준영이와 사귐에 있어서 상처가 가득한지'는 명확하지 않아 의사 소통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의사소통에 있어서 매끄럽지도 않다. 그러나, '고마워 하기는커녕 상처만 가득하다'고 말을 한다면 상대방의 물음과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중시하는 대화를 할 수 있어 결국 서로가 공동적인 주관을 이룬게 된다.

4. 결 론

지금까지 한국어의 '커녕' 및 관련 표현의 문법적·의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앞의 논의를 요약하면서 결론을 맺도록 할 것이다.

본고는 영어와 중국어의 소략한 비교로부터 이 글을 쓰게 되었고, 한국어의 언어현실로부터 '커녕' 및 관련 표현을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 설명을 하였다. 어떤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부정하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가진 것으로 '커녕$_1$ ', '고사하고$_1$ ', '물론이고$_1$ ', '말할 것도 없고$_1$ ', '하물며$_1$ ', '이 다 뭐야$_1$ '로 표기하였고, 어떤 사실은 말할 나위도 없이 부정하고 그보다 더 심한 일을 맞이하는 뜻을 가진 것으로 '커녕$_2$ ', '고사하고$_2$ ', '물론이고$_2$ '로 표기하였고,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도리어의 뜻을 가진 것으로 '커녕$_3$ ', '고사하고$_3$ ', '물론이고$_3$ ', '이 다 뭐야$_2$ ', '말할 것도 없고$_2$ ' 로 표기하였고, 어떤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긍정하고 그보다 더한 것까지 긍정하는 뜻을 가지는 것으로 '물론$_4$ ', '말할 것도 없고$_3$ ', '하물며$_2$ ', '이 다 뭐야$_3$ '로 표기하였고, 잠시 미루어 문제 삼지 않음, 우선 내버려둠의 차치물론(且置勿論)의 뜻을 가진 것으로 '고사하고$_4$ ', '이 다 뭐야$_4$ '로 표시하였다.

'커녕' 및 관련 표현의 부분적인 특징으로 접속기능, 조각문, 부정극어, 쌍 대조 초점, 척도, 함의가 있다. '어떤 사실은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과 '어떤 사실은 말할 나위도 없이 긍정하고, 그보다 더한 것까지 긍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접속기능, 함의, 척도, 쌍 대조 초점의 특점에 부합되고, '어떤 사실은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은 부정극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도리어'의 뜻은 반(反)기대 표지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특징은 '커녕' 및 관련 표현의 부분적인 특징으로 전반적인 특징을 총괄하지 못하였다. 본고는 한국어 '커녕' 및 관련 표현의 특징을 아우르기 위하여 대화를 중

심으로 하여 자신의 주관성뿐만 아니라, 청자의 주관성도 고려하여 언어행위가 이루어 진다는 사실을 중시한 '상호주관성'의 개념을 원용하여 논의를 하였다.

<참고문헌>

구종남(2007),「화용론적 가정과 부정극어」,『한국언어문학』60, 한국언어문학회, 5-17.

구종남(2012),『국어의 부정극어』, 도서출판 경진.

권재일(2003).「입말 자료에 반영된 국어의 문법 현상」, 606돌 세종날기념 한글 학회 연구 발표집.

김양진(1999),「국어 형태 정보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진해(2000),『연어연구』, 한국문화사

남기심·고영근(1983),『국어의 통사·의미론』, 탑출판사.

노대규(1996),『한국어의 입말과 글말』, 국학자료원. 197~202.

류하라(2005),「현대국어 조사의 배열 양상」,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금현(1996),「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박영순(2007),『한국어 화용론』, 박이정.

박정운·나익주·김주식(2006),『어원론에서 화용론까지』, 박이정

박진호(1994),「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구조」,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박진호(2003),「관용표현의 통사론과 의미론」, 국어학회 제29회.

박진호(2012),「의미지도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요소와 문법요소의 의미기술」,국어학회

서은아・남길임・서상규(2004),「구어 말뭉치에 나타난 조각문 유형 연구」,『한글』264, 한글학회, 123-151.

성광수(1972),「국어 소형문에 대한 검토」, 한글 259. 한글학회. 203~205.

송영주(1993),『담화분석』, 한국문화사.

서은아・남길임・서상규(2004),「구어 말뭉치에 나타난 조각문 유형 연구」,『한글』264, 한글학회, 123-151.

시정곤(2006),『현대국어 통사론의 탐구』, 월인.

안남용(1996),「국어와 영어의 부정 극어에 관한 연구」,『우암논총』15, 청주대학교 대학원, 177-194.

양태식(1992),『국어구조의미론』, 서광학술자료사.

윤평현(2003), 「국어 소형문의 발화 행위에 대한 고찰」, 한글 259. 한글학회. 203~205.
이규호(2006), 「접속조사의 분류와 목록」, 『우리말 글』37, 우리말글학회, 171-195.
이윤하(2007), 「부사(어)구 수식 구성에 대하여」, 『국어학』50, 국어학회, 77-114.
이익환 공저(2008), 『언어 이론과 그 응용』, 한국문화사.
이익환(2000), 『영어의미론』, 한국문화사.
이정화(2004), 「현대국어의 접속조사 연구」, 『대학원 연구논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5-35.
이지연(2006), 「한국어 보조사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李益煥·權慶遠(1993), 『화용론』, 한신문화사.
이성재(2000), Benveniste의 발화이론, 부산대학교 논문집.
이정화(2004), 「현대국어의 접속조사 연구」, 『대학원 연구논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원, 5-35.
이지연(2006), 「한국어 보조사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동훈(2004), 한국어 조사의 하우 부류와 결합 유형, 『국어학』43, 국어학회, 119-154.
임동훈(2005), 한국어의 조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방송대 평생교육편)177-214.
임동훈(2006), 「'만큼,처럼, 보다'가 격조사인가」
임동훈(2007), 「한국어 조사 '만'과 '도'의 의미론」, 『朝鮮學報』205, 천리대학 조선학회, 1-20.
임동훈(2012), 「'은/는'과 종횡의 의미 관계」, 『국어학』64, 국어학회, 21-271.
임근석(2010), 『한국어 연어 연구』, 월인.
임홍빈·장소원(2000), 『국어문법론I』,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초판 6쇄.
장소원(1994), 「현대 국어 소형 발화 연구」, 텍스트 언어학 2. 텍스트 연구회, 261~265.

전영철(2006),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의 표지 '는'」, 『한글』274, 한글학회, 171-200.

정해권(2011), 「한국어 문장의 주제와 초점 구조 습득-"은/는"과 "이/가"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22-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85-304.

주향아(2012), 「보조사 '까지, 조차, 마저'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규련(1999), 「초점(Focus)과 영향권(Scope)-국어 초점사 "다만, 역시, 심지어" 그리고 "-만, -도, -까지/마저/조차"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6, 한국텍스트언어학회, 331-359.

최윤곤(2007), 『한국어 구문표현 연구』, 한국문화사.

최전승(2003), 「중세국어 '-는 커니와'에서 공시적 방언형 '-은(는)커녕' 계열까지의 통시적 거리: 문법화의 한 가지 양상」, 『우리말 글』28, 우리말글학회, 77-124.

최현배(197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홍윤표(1969), 『15세기 국어의 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Clark, Herbert H. (1996), Using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roft, William(2001), Radical Construction Grammar: Syntactic Theory in Typological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Fauconnier, G. (1975a). Pragmatic scales and logical structure. linguistic Inquiry 6, 353-75.

Fauconnier, G. (1975b). Polarity and the scale principle. CLS 11, 188-99.

——. (1978), Implication reversal in a natural language[A]. F. Guenthner & S. J. Schmidt. Formal Semantics and Pragmatics for Natural languages[C].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Company, 289-301.

——, (2002), The Way We Think: Conceptual Blending and the Mind's Hidden Complexities[M]. New York: Basic Books.

Fillmore, Charles J., Paul Kay, and M. Catherine O'Connor (1988). Regularity and idiomaticaity in grammatical construction: the case of let alone. Language 64: 3, pp. 501-538.

Hopper, P. & E. C. Traugott(1993), Grammaticalization and their problems, Language sciences 23.

Langacker, Ronald W.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I.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1990), 'Subjectification', Cognitive Lingguistics, 1: 5-38.

—— (1991),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ii. Descriptive Application.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Kroeger, Paul R(2004), Analyzing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Kurtowicz, Jerzy. 1975. The Evolution of Grammatical Categories. Esquisses Linguistiques Ⅱ. Munich: Fink.

Traugoot, E. C. and Dasher, R. B.(2002), Regularity in Semantic Change [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erhagen, A.(2005) Constructions of Intersubjectivity: Discourse, Syntax, and Cognition [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부 록

영화 대본 목록:

...ing
10억
301 302
4인용식탁
7급공무원
8월의 크리스마스
YMCA 야구단
가루지기
가문의 부활
가문의 영광
가을로
가족의 탄생
각설탕
간첩리철진
강력3반
강원도의 힘
강철중
거룩한 계보
거미숲
거북이 달린다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
걸프렌즈
검은 집
결혼은 미친 짓이다
고고70
고독이 몸부림칠 때
고사-피의 중간고사
고양이를 부탁해
공공의적
광식이 동생 광태
괴물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국가대표
국화꽃향기
굿모닝 프레지던트
귀여워
그녀를 믿지 마세요
그놈목소리
그놈은 멋있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랑프리
그해 여름
극락도살인사건
기막힌 사내들
김복남살인사건의 전말
김씨표류기
김종욱 찾기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쁜 남자
나의 친구 그의 아내
남극일기
내 마음의 풍금
내 깡패같은 애인
내 사랑 내 곁에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내여자친구를소개합니다
너는 내운명
넘버3
누가 그녀와 잤을까
누구나 비밀은 있다
님은 먼곳에
다세포소녀
다찌마와리
단적비연수
달마야 놀자
달콤, 살벌한연인
달콤한 인생
대한민국헌법제1조
댄서의 순정
데이지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마뱀
동감
동갑내기 과외하기
동승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두사부일체
뚫어야산다
라디오스타
라이터를 켜라
령
로드무비
리베라메
마더mother
마들렌
마린보이
마을금고연쇄습격사건
마이제네레이션
마이파더
마지막늑대
말아톤
말죽거리잔혹사
맨발의 기봉이
맨발의 꿈
멋진하루
목포는 항구다
미녀는 괴로워
미술관 옆 동물원
미스터 스크라테스
밀양
바람난 가족
바람피기좋은날
바르게 살자
박봉곤가출사건
박수칠 때 떠나라
박쥐
박하사탕
반가운 살인자
반칙왕
방과 후 옥상
방자전
백만장자의 첫사랑
버스정류장
번지점프를 하다
범죄의 재구성
베스트 셀러
복수는 나의것
봄날은 간다
봄여름가을겨울그리고 봄
부당거래
부산
분홍신
불꽃처럼 나비처럼
불어라봄바람
불후의 명작
뷰티풀선데이
브라보마이라이프
비밀애
비스티보이즈
빙우
뽕
사랑니
사랑따위 필요없어
사랑을 놓치다
사랑할 때 이야기하는 것들
사랑해, 말순씨
사이보 그지만 괜찮아
새드무비
색즉시공
선물
선생 김봉두
소년, 천국에 가다
수취인불명
숙명
순애보
쉬리
슈퍼스타감사용
스승의 은혜
스카우트
시
시라노연애조작단
시월애
시크릿
식객-김치전쟁
신라의달밤

신부수업
심장이 뛴다
싱글즈
싸움의기술
써니
아 유 레디
아내의 애인을 만나다
아랑
아름다운 시절
아빠가여자를좋아해
아이스케키
아저씨
아파트
악마를 보았다
악어
안녕! 유에푸오
안녕, 형아
알포인트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
게 미
치는 영향
약속
어깨너머의 연인
어린신부
억세게 운수 좋은 날
얼굴 없는 미녀
엄마에게 애인이 생겼
어요
여고괴담5

여배우들
여자, 정혜
연애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
움
연애소설
연애의 목적
연풍연가
열혈남아
엽기적인 그녀
영어완전정복
영화는 영화다
예스터데이
예의 없는 것들
오! 브라더스
오! 수정
오감도
오로라공주
오아시스
올가미
올드보이
와니와 준하
와이키키 브라더스
와일드카드
외출
용서는 없다
용의주도 미스 신
우리 생애 최고의 순

간
우리 집에 왜 왔니
우리 형
우리 동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
웅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우묵배미의 사랑
우아한 세계
울학교 이티
웰컴 투 동막골
위대한 유산
유령
육혈포 강도단
음란서생
의형제
이중간첩
인디안 썸머
인사동 스캔들
인샬라
인언 공주
인터뷰
인형사
일단 뛰어
자카트타
잔혹한 출근
잠복근무
장화홍련
잔설의 고향

접속
정사
조선명탐정
조용한 세상
조용한 가족
좋지 아니한가
주먹이 운다
주홍글씨
죽이고 싶은
중독
중천
즐거운 인생
지그를 지켜라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질투는 나의 힘
집행자
짱
쩨쩨한 로맨스
처녀들의 저녁식사
천하장사 마돈나
청담보살
청연
청춘만화
첼로-홍미주 일가 살인사건
초록물고기
최강로맨스
추격자
친구
친절한 금자씨
카라
클래식
클럽 버터플라이
킬러들의 수다
킹콩을 들다
타짜
태극기 휘날리며
태양은 없다
태풍
텔 미 썸딩
퇴마록
투캅스
튜브
파괴된 사나이
파란 대문
파란 자전거
파랑주의보
파송송 계란탁
파업전야
파이한
펀치 레이디
편지
평양성
평행이론
폭력써클
품행 제로
플라스틱 트리
플라이 대디
플란다스의 개
피도 눈물도 없이
피막
하녀
하루
하얀방
해변의 여인
해안선
해피 엔드
행복
행복한 장의사
헬로우 고스트
혈의 누
형사 Duelist
호로비치를 위하여
홀리데이
홍길동의 후예
홍반장
화려한 휴가

드라마 대본 목록:

1%의 어떤 것 1회~26회
2008 전설의 고향 1회~8회
2009 외인구단 1회~16회
90일, 사랑할 시간 1회~11회
90일, 사랑할 시간 14회~16회
9회말 2아웃 1회~16회
가문의 영광 1회~50회
가시나무새 1회~2회
강남엄마 따라잡기 1회~18회
강적들 1회~16회
개와 늑대의 시간 1회~16회
개인의 취향 1회~16회
거짓말 1회~20회
거침없는 사랑 1회~19회
거침없이 하이킥 1회~167회
건빵선생과 별사탕 1회~16회
검사 프린세스 1회~16회
겨울 연가 1회~20회
결혼 못하는 여자 1회~16회
결혼하고싶은여자 1회~18회
결혼해주세요 1회~2회
경성스캔들 1회~16회
고독 1회~20회
고맙습니다 1회~16회
고스트 1회~16회
공부의 신 1회~16회
공주가 돌아왔다 1~16회
구미호외전 1회~16회
국희 1회~20회
굿바이 솔로 1회~16회
궁 1회~24회
귀여운 여인 1회~10회, 13회~16회
그 여자 1회~20회
그대, 웃어요 1회~45회
그대 그리고 나 1회~58회
그들이 사는 세상 1회~16회
그린로즈 1회~22회
그저 바라보다가 1회~16회
글로리아 1회~12회
기적 1회~4회
김가이가 1회~24회
꼭지 1회~24회
꽃보다 아름다워 1회~30회
꽃보다 남자 1회~20회
나쁜 남자 1회~18회
남자이야기 1회~20회
낭랑 18세 1회~16회
내 마음을 뺏어봐 1회~16회
내 마음이 들리니 17회~26회
내 여자 1회~24회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1회~16회
내 인생의 꽁깍지 1회~16회
내 인생의 스페셜 1회~8회
내게 거짓말을 해봐 1회~5회
내남자의여자 1회~14회
내마음이 들리니 1회~16회
내사랑내곁에 1회~4회
내사랑못난이 1회~20회

내사랑팥쥐 1회~10회
내 생애마지막스캔들 1회~16회
내조의 여왕 1회~20회
넌 어느 별에서 왔니 1회~16회
네 멋대로 해라 1회~20회
노란손수건 1회~132회
눈꽃 1회~16회
눈물이 보일까봐 1회~16회
눈사람 1회~17회
눈의 여왕 1회~16회
뉴하트 1회~23회
닥터 깽 1회~16회
닥터챔프 1회~16회
단팥빵 1회~26회
달자의봄 1회~22회
달콤한나의도시 1회~16회
달콤한인생 1회~19회
달팽이 1회~16회
대물 1회~24회
대한민국변호사 1회~16회
돌아와요 순애씨 1회~16회
두 번째 프로포즈 1회~16회
드림 1회~20회
떼루아 1회~8회
라이벌 1회~20회
러브레터 1회~16회
러브스토리 1회~16회
로열패밀리 1회~18회
마당 깊은 집 1회~8회
마왕 1회~20회
마이 프린세스 1회~6회
마이걸 1회~2회
마이더스 1회~3회
맛있는 청혼 1회~16회
맨땅에 헤딩 1회~40회
메리대구 공방전 1회~16회
명가 1회~10회
명랑소녀 성공기 1회~16회
모래시계 1회~24회
못된 사랑 1회~20회
몽땅 내사랑 1회~103회
미남이시네요 1회~16회
미스터 굿바이 1회~16회
미안하다, 사랑한다 1회~16회
민들레가족 1회~16회
바보 같은 사랑 1회~20회
반달콤 내 사랑 1회~16회
반짝반짝 빛나는 1~40회
발리에서 생긴일 1~20회
백설공주 1회~16회
베토벤바이러스 1회~18회
변호사들 1회~16회
별을 따다줘 1회~20회
보고 또 보고 1회~273회
봄의 왈츠 1회~20회
부자의 탄생 10회~11회
부활 1회~24회
불꽃 1회~20회

불꽃놀이 1회~17회
불새 1회~26회
불한당 1회~16회
비단향꽃무 1회~20회
비밀 1회~18회
비밀남녀 1회~20회
비밀의 고정 1회~24회
비포&애프터 성형회과 1회~12회
사랑한다 말해줘 1회~15회
사랑해 당신을 1회~16회
사랑해, 울지마 16회~45회
산부인과 1회~16회
살맛납니다 11회~20회
상도 1회~50회
상두야학교가자 1회~16회
성균관스캔들 1~5회
세상 끝까지 1회~16회
소문난 칠공주 1회~80회
소울메이트 1회~12회
솔약국집 아들들 1회~54회
수상한 삼형제 1회~64회
수호천사 1회~16회
순수 1회~16회
스타의 연인 1회~20회
스타일 1회~16회
승부사 1회~24회
시크릿가든 1회~2회
시티홀 1회~3회
신데렐라맨 1회~16회
신데렐라언니 1회~18회
신의저울 1회~16회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1회~8회
싸인 1회~20회
썸데이 1회~3회
아가씨를 부탁해 1회~2회
아름다운 날들 1회~24회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 1회~48회
아빠셋 엄마하나 1회~16회
아이리스 1회~8회
아이싱 1회~16회
아일랜드 1회~16회
아직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 1회~7회
안녕 내사랑 1회~16회
안녕하세요 하느님 1회~16회
알게될거야 1회~19회
애정의 조건 1회~12회, 14회~39회, 41회~60회
어느 멋진 날 1회~16회
얼렁뚱땅 흥신소 1회~16회
얼마나 좋길래 1회~125회
에덴의 동쪽 1회~56회
에어시티 1회~16회
여름향기 1회~7회
여우야 뭐하니 1회~16회
역전의 여왕 1회~2회
연애결혼 1회~16회
연애시대 1회~16회

연인 1회~20회
열아홉순정 1회~30회, 32회~167회
열혈장사꾼 1회~20회
오! 마이 레이디 1회~17회
오! 필승 봉순영 1회~16회
옥션하우스 1회~4회
옥탑방고양이 1회~16회
온달 왕장들 1회~63회, 65회~130회
온에어 1회~21회
올드 미스 다이어리 1회~232회
올인 1회~24회
완벽한 이웃을 만나는 법 1회~16회
욕망의 불꽃 1회~50회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1회~44회
우리 집 여자들 1회~24회
웃어라 동해야 1회~155회
워킹맘 1회~16회
원더풀 라이프 1회~16회
웨딩 1회~18회
웨딩드레스 1회~22회
위기일발풍년빌라 1회~6회
은사시나무 1회~3회
이 죽일 놈의 사랑 1회~6회
이네 자매 이야기 1회~20회
이웃집 웬수 1회~10회
인생은 아름다워 1회~15회
인생화보 1회~201회
인순이는 예쁘다 1회~16회
인연 만들기 1회~14회
자명고 1회~21회, 23회~39회
장난스런 키스 1회~16회
장밋빛 인생 1회~24회
제중원 1회~17회
종합병원2 1회~6회
좋은 사람 1회~16회
줄리엣의 남자 1회~17회
즐거운 나의 집 1회~2회
진실 1회~16회
짝패 1회~3회
쩐의 전쟁 1회~16회
찬란한 유산 1회~28회
천국의 계단 1회~20회
천만번 사랑해 18회~25회
청춘의 덫 1회~24회
초대 1회~18회
최강! 울엄마 1회~18회
최고의 사랑 1회~2회
카이스트 6회~67회
카인과 아벨 1회~20회
칼잡이 오수정 1회~16회
커피프린스1호점 1회~17회
커피하우스 1회~8회
케세라세라 1회~17회
코끼리(2008) 1회~124회
쾌걸춘향 1회~17회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1회~16

회
타짜 1회~20회
탐나는도다 1회~15회
태양을 삼켜라 1회~25회
태양의 여자 1회~20회
토마토 1회~16회
트리플 1회~16회
파리의 연인 1회~20회
파스타 1회~20회
포도밭 그 사나이 1회~16회
프라하의 연인 1회~5회, 9회~17회
프로포즈 1회~14회
피아노 1회~16회
하얀거탑 1회~20회
학교 1회~16회
학교2 1회~42회
한성별곡 1회~8회
햇빛속으로 1회~16회
행복한 여자 1회~58회
헬로! 애기씨 1회~16회
형수님은 열아홉 1회~19회
호텔리어 1회~20회
혼 1회~5회
화려한 시절 1회~50회
환상의 커플 1회~16회
황금마차 1회~196회
황금사과 1화~30회
황금신부 1회, 10회~22회
히트 1회~20회

＜中文摘要＞

关于'커녕'及其关联表现型的研究

金焱

本文的研究目的是对'커녕（更不用说）'及其关联表现型的语法和意义特征进行研究分析，对韩国语的'커녕'及其关联表现型中所包括的'커녕'，'고사하고'，'물론'，'말할 것도 없고'，'하물며'，'이 다 뭐야'的不同点，以及惯用的表现形式进行分析论述。

现有的字典里对'커녕'及其关联表现型的叙述分为两大意思，一个是表示程度的减弱，句子前后都为否定，另一个是表示语意的转折。本文根据'커녕'及其关联表现型的语法和意义特征将它们分为五种表现形式。第一，表示程度的减弱，句子前后都为否定的有'커녕$_1$'，'고사하고$_1$'，'물론이고$_1$'，'말할 것도 없고$_1$'，'하물며$_1$'，'이 다 뭐야$_1$'；第二，表示程度的减弱，句子前为否定后为肯定的有'커녕$_2$'，'고사하고$_2$'，'물론이고$_2$'；第三，表示语义转折的有'커녕$_3$'，'고사하고$_3$'，'물론이고$_3$'，'이 다 뭐$_2$'，'말할 것도 없고$_2$'；第四，表示语义增强，前后句都为肯定的有 '물론$_4$'，'말할 것도 없고$_3$'，'하물며$_2$'，'이 다 뭐야$_3$'；第五，表示且置勿論的有 '고사하고$_4$'，'이 다 뭐야$_4$'。用意义图表更能够简单直观的表明上述五种表现形式的意义。

'커녕（更不用说）'及其关联表现型主要有：连接前后句、不完整句（sentence fragment）、否定极性项、双焦点结构（a paired focus construction）、梯级项、蕴含的特征。 在表示程度的减弱，句子前后都为否定意思和前后句都为肯定的句子时'커녕（更不用说）'及其关联表现型有连接前后句、双焦点结构、梯级项、蕴含的特征。在表示程度的减弱，句子前后都为否定意思的语句中'커녕（更不用说）'及其关联表现型有否定极性项的特征。此外，在赋有转折意义的语句中它们有反期待标志的特征。所以，在不同的语义结构，语句形式上'커녕（更不用说）'及其关联表现型所表现出来的特征是不一样的。本论文运用了'交互主观性'概念中的以对话为

中心，重视语言行为成立事实中说话双方的主观性的理论来概括‘커녕（更不用说）’及其关联表现型的特征。

关键词：更不用说（커녕，고사하고，물론，말할 것도 없고，하물며，이다 뭐야），　连词，不完整句，否定极性项，双焦点结构，蕴含，梯级项，反期待标志，相互主观性

学号：2011-23994